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o

VOL. 106

세계인이 즐기는 한국 문화의 힘
우리의 문화 콘텐츠의 발전에 함께하는 재정



Theme Story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 문화.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방위적인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정 INSIGHT

04 통계로 보는 FIS 인사이드

문화예술 부문 예산

08 이달의 재정 VOCA

사회보장성기금

10 재정칼럼

K-콘텐츠 해외 진출 경쟁력 방안

임윤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수출본부장

K-콘텐츠, 위기 속에서 '다음 레벨'을 묻다

조영신 동국대학교 대우교수

재정 NOW

24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5년 8월 기준 재정동향

26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38 재정 캘린더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윤석호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652 기획·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 02-2672-1535



재정 NAVIGATION

- 40 예술사 속 재정경제 이야기
기업가들, 뉴욕을 예술의 메카로 만든다
- 46 내가 써온 한국 재정사
예산 편성과 기획
- 52 재정이 MONEY
K-컬처 산업의 오늘과 내일
- 56 플랫폼이 된 도시
모더니즘의 도시,
브라질리아의 상징과 새로운 과제
- 64 서울 남산공원의 여섯 위인
다산 정약용
- 66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FIS 재정

- 68 FIS 재정 알리미
FIS 고객상담센터
- 70 재정원 소식
- 72 애독자 코너





통계로 보는

문화예술 부문 예산

글·김민경 부연구위원

2025년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약 8.8조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예산 대비 약 1.3% 수준이지만,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제고,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이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야다. 특히 수년 전부터 한류로 시작된 K-컬처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으로, 문화 부문 예산이 창작 기반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K-pop과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은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국가 관광, 수출, 외교적 자산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국가 이미지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강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9월에 발표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K-컬처 수출과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하며 K-콘텐츠 수입강화 등을 위한 콘텐츠 생태계를 육성하고 글로벌 K-컬처 허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등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세부적으로는 문화예술, 체육, 국가유산, 관광, 문화 및 관광 일반 등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부문별 지출 추이 |

(단위: 억 원, %)

구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문화예술	37,668 (44.6)	41,798 (46.4)	38,990 (46.2)	39,357 (47.4)	39,857 (45.3)
체육	18,799 (22.2)	19,932 (22.1)	16,314 (19.3)	15,403 (18.6)	16,739 (19.0)
국가유산	10,944 (12.9)	11,871 (13.2)	13,076 (15.5)	13,446 (16.2)	13,874 (15.8)
관광	13,766 (16.3)	12,937 (14.4)	12,406 (14.7)	13,267 (15.9)	13,477 (15.3)
문화 및 관광 일반	3,362 (4.0)	3,581 (4.0)	3,676 (4.4)	1,540 (1.9)	3,941 (4.5)
합계	84,539 (100.0)	90,118 (100.0)	84,462 (100.0)	83,013 (100.0)	87,888 (100.0)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25 주요 재정통계」

문화예술 부문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속한 것으로, 2025년 예산 기준 3조 9,857억 원 규모이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체육 부문은 1조 6,739억 원, 국가유산 부문은 1조 3,874억 원 규모이며 관광과 문화 및 관광 일반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 문화 예술 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추이 |

(단위: 억 원, %)

구분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콘텐츠산업 육성	8,309 (22.1)	8,843 (21.2)	8,232 (21.1)	9,809 (24.9)	8,870 (22.3)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4,885 (13.0)	6,255 (15.0)	5,433 (13.9)	4,791 (12.2)	5,324 (13.4)
예술의 창작 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3,232 (8.6)	3,861 (9.2)	3,857 (9.9)	3,933 (9.9)	4,194 (10.5)
창의적문화정책구현	1,679 (4.5)	1,985 (4.7)	2,006 (5.1)	1,818 (4.6)	2,401 (6.0)
국제문화홍보*	1,106 (2.9)	1,371 (3.3)	1,214 (3.1)	1,187 (3.0)	2,247 (5.6)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본예산 기준

* 2025년 해외홍보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 신설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2025 주요 재정통계」.

문화예술 부문을 구성하는 주요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콘텐츠산업육성이 8,870억 원 규모로 전체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프로그램이 5,324억 원 규모이다. 그 외에도 예술의 창작 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국제문화 홍보 프로그램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025년 예산부터 기존 해외홍보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국제문화홍보로 개편된 것이 눈여겨 볼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예술 부문의 주요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세계적 문화강국 실현이라는 기초 아래 전략적 투자 측면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국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향유 기회 확대와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다. 청년예술인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청년예술단 신설에 49억 원,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계좌에 36억 원을 편성하였다.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연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또한, 아동·청소년 꿈의 스튜디오 사업이 신설되었다. 튼튼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어린이 청소년 극단신설 사업에 29억 원이 편성되었고 책 읽는 대한민국 사업이 연 2회 행사 예정으로 10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 2025년도 문화예술, 콘텐츠 중점 편성 사업 |

(단위: 억 원)

구분	사업명	예산 편성 금액
문화예술	통합문화이용권	2,636 (+239)
	취약계층아동 '꿈의 예술단' 지원	125 (+18)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156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	29 (신규)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49 (신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36 (신규)
	어울림 한국문화페스티벌	30 (신규)
	문화예술 민간국제교류 지원	12 (신규)
	책 읽는 대한민국	10 (신규)
콘텐츠	글로벌 리그 펀드 조성	400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	135 (+65)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100 (신규)
	콘솔게임 지원	155 (+87)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92 (+30)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 개발	4,864 (+111)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120 (+50)
	대형 한류 종합행사	79 (신규)
	해외 진출 거점 운영	252 (+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콘텐츠 부분에서는 정책금융 재구조화를 통한 투자 내실화 및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리그 펀드를 4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1,000억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진출 거점을 기존 25개소에서 30개소 확대하면서 60억 원 증가한 2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외문화기관의 통합과 거점화를 통해 K-컬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K-콘텐츠 대표 장르 맞춤형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해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고, 만화웹툰 해외 진출 지원과 콘솔 게임 육성 사업을 각각 전년 대비 65억 원, 87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는 등 해당 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문화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부문이지만 국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며, K-컬처라는 세계적 성과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예산 규모를 넘어선 파급효과를 가진 분야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르별 특화 지원과 맞춤형 인재 양성, 문화예술에서의 AI 활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단기적 수출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 증가는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기반이고, 더불어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문화의 균형적 발전은 문화 복지와 직결되어 있다. 문화 예산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국 문화는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복지로 향유되며 동시에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달의 재정 VOCA —

사회보장성기금

사회보장성기금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보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러운 위험에 닥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가 사회보장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노령·질병·실업·장애 등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사회보장성기금입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지출에 대비하여 정부가 기여금 또는 보험료 등을 부과하여 운용하는 재원으로, 정부의 일반 재정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의 4대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공적보험을 포함하여 크게 8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나머지 6개 사회보험은 각각 별도의 사회보험성기금(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성기금 가운데 국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사회보장성기금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사회보장성기금을 구분한 이유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발전하는 시기에 사회보험을 위한 수입이 지출보다 커서 재정수지의 구조적 흑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하여 관리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월호 '이달의 재정 VOCA' 관리재정수지 참조)



사회보장성기금은 왜 중요할까?

사회보장성기금은 수급 구조나 성숙단계에 따라 기금 수지의 변동이 발생하며, 수지의 악화는 국가재정의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을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버팀목으로써 사회보장성기금의 지속가능성은 중요합니다.

사회보험성기금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설치 및 조성 근거	국민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 년도	1988년	1975년	1995년	1964년	1960년	1960년
기금 관리·운용 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동법 제102조 1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 탁할 수 있음 (동법 제102조 6항)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동법 제53조의3 1항) ※ 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 필요 (동법 제53조의3 4항)	고용노동부장관 (동법 79조 1항)	고용노동부장관 (동법 제97조 1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에 위탁할 수 있음 (동법 제97조 4항)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동법 제77조 1항) ※ 단, 기금의 운용 에 관한 중요사항 에 대해서는 인사 혁신처장의 승인 필요 (동법 제77조 3항)	국방부장관 (동법 제49조 1항)
기금 규모 (2025년 예산 기준)	177.6조 원	13.7조 원	27.7조 원	23.4조 원	33.8조 원	4.6조 원

주 : 기금 규모는 적립금이 아닌 총계기준 연간 운용규모를 의미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회계·기금운용구조(한국재정정보원, 2025) 참고



K-콘텐츠 해외 진출 경쟁력 방안

엄윤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수출본부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이후 현재 K-콘텐츠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흑자산업
2025년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2030년까지 세계 5대 문화강국 실현 목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경쟁력을 위해 브랜드를 가진 콘텐츠IP로 생명력 지속 필요
국가별 현황 파악 및 개별 전략 수립과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확보 필요

- 2023년 기준 한국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4조 원, 수출액은 133억 달러
- 전 세계 한류 팬 숫자 2억 2,500만 명으로 11년간 24배 증가
- 2030년까지 총지출 대비 2% 이상 지원 재정 확대, 5년간 51조 원 투입 계획



K-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현황



K-CONTENT

- 국가별 관련 법제도 파악, 관련 서비스 지원
- 현지 국가 콘텐츠IP 등록 및 출원의 제도적 지원
- K-콘텐츠 해외 현지 프로모션과 팬덤의 확장 지원
- 네트워크 확보와 비즈니스 매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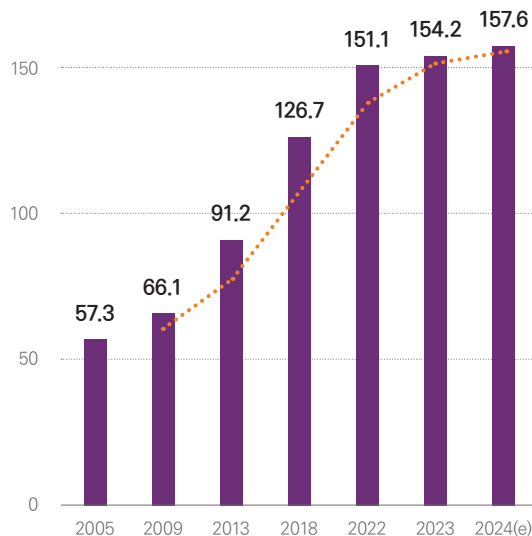
1. 격세지감(隔世之感)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을 21세기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산업을 문화와 예술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규정, 본격적인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 관련 예산을 국가 예산 총액 대비 1% 이상 배정하기 시작한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문화산업 총산출액(1999년)은 약 21조 원, 수출액(2000년)은 약 8.5억 달러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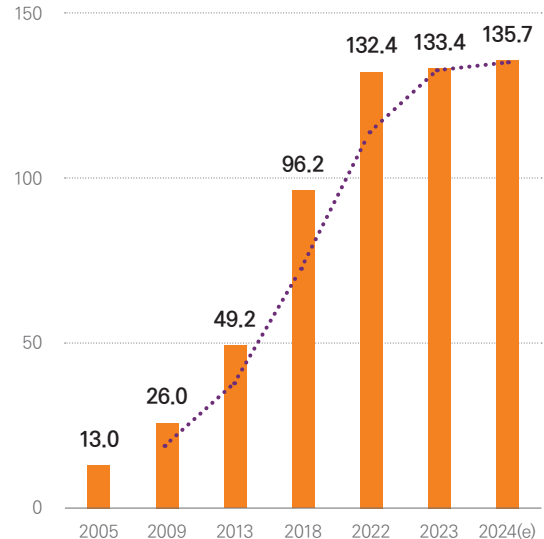
이후 정부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에 따라 한국문화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게임종합지원센터(1999년), 문화산업지원센터(2000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1년), 한국콘텐츠진흥원(2009년)을 설립하여 정책 지원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 기반과 적극적인 정부예산 투입 의지는 현재 콘텐츠산업의 비약적인 도약의 초석이 되었고 글로벌 ‘한류’ 확산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2025년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약 154조 원, 수출액은 약 133억 달러다. 1999년과 단순하게 비교해 봐도 매출액은 7배 이상, 수출액은 1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콘텐츠산업 매출액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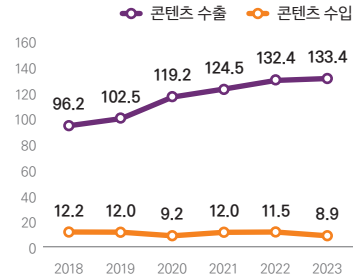
콘텐츠산업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2004~2024, 한국콘텐츠진흥원(2025)', '2024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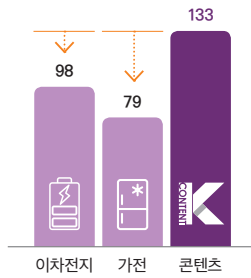
더하여 콘텐츠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흑자산업이다. 2023년 기준, 콘텐츠 수입액은 약 9억 달러로 파악, 약 124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가전과 이차전지 수출액을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 유일하게 수출 업황지수에서도 긍정적 전망을 보여 유일하게 콘텐츠산업만이 수출 업황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수출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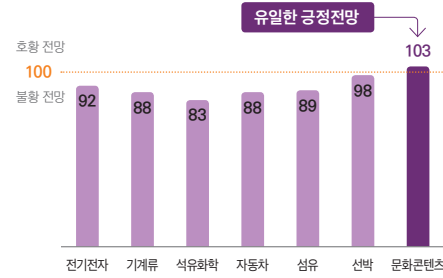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수출액 규모('23년 기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업종지수('24년 4분기 기준)



출처: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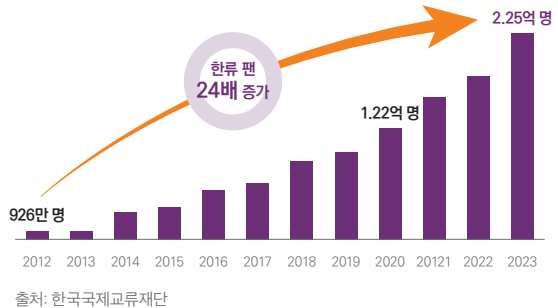
현재 K-콘텐츠산업 해외 진출의 확장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숫자는 약 2억 2,500만 명으로 지난 11년간 24배 증가했으며, 이는 국가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인지도를 끌어 올리고 있다.

2.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혁의 시작 '문화가 곧 경제'

25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온 K-콘텐츠산업은 지난 3년간 숨 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6%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 드디어 2022년에는 약 10%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여전히 15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1.7% 내외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K-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예산 대비 문화 예산을 다시금 대폭 확대하여 진흥 정책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기조에 이은 매우 긍정적인 K-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강력한 기조 아래 K-콘텐츠를 국가 소프트파워와 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아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 개막과 문화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K-콘텐츠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30년까지 국가 총지출 대비 2% 이상으로 지원 재정을 확대하고 세계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51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1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K-콘텐츠의 지속적 글로벌 확산과 산업 발전을 위해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활동 역시 기대된다. 향후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연과 축제 지원, 글로벌 팬덤의 확장, 관계 법제도 개선 등 새로운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도약의 기회가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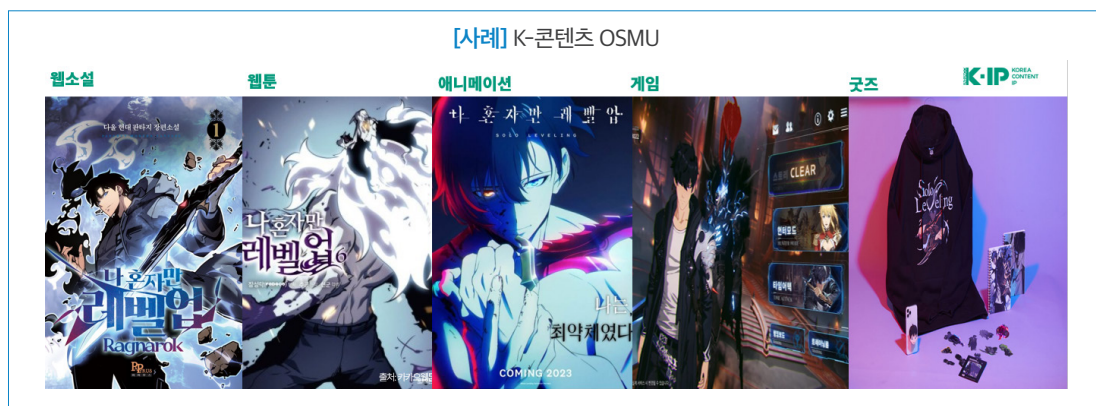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3. K-콘텐츠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법론

첫째, 콘텐츠 수출에서 콘텐츠 해외 진출로 개념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창·제작된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무제한 재판매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한다. 방송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은 방송매체나 OTT 플랫폼을 통해, 게임이나 웹툰 등은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탑재 즉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다분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보통 수출의 개념은 셀러와 바이어 간 거래를 통해 상품(물품)을 포장하여 항공, 선박 등 운송수단을 통해 자국 시장을 넘어 타국 시장에 판매하는 행위로 외화 획득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방송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는 판권 수출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 웹툰, 캐릭터 라이선스 등 계약에 의한 해외 진출의 비즈니스 형태를 수출로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제 K-콘텐츠는 해외 기업과 계약에 따른 공동제작과 리메이크 그리고 서비스, 해외 제작 투자 유치, 콘텐츠IP 해외 라이선스 상품화, 현지 스튜디오 설립, 해외 유통거점 마련 등 콘텐츠 해외 진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비즈니스 확장에 노력해야 할 시기다.

둘째, 콘텐츠는 브랜드를 창출하고 브랜드가 탑재된 콘텐츠IP를 통해 그 생명력을 최대한 연장하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한다. 장르별 콘텐츠가 창·제작되고 단독으로 출시되는 경우, 그 생명력은 1년을 넘기기 힘들다. 16부작 방송드라마가 TV, OTT 등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 우선 방영 중 8주간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이후 재방과 OTT 하위 디렉토리에서 머물다 브랜드성을 잃게 된다. 이상적인 모델은 1차 흥행한 웹툰을 소재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방영 후 모바일게임으로 서비스하고, 다시 방송물로 재구성해 공개하고 뮤지컬, 테마파크까지 연결되는 콘텐츠IP로 브랜드의 확장 및 연장 기획이 진행된다면 그 생명력은 영속적으로 유지도 가능할 것이다. 월트디즈니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작권 권리보호 기간이 7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유도 창작자의 콘텐츠 브랜드화와 활용 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한다. 문화산업 정책지원 초기에는 이러한 구조를 OSMU(One Source Multi Use)로 개념화했다.



셋째, 과거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던 시각을 한층 더 끌어 올려서 현재의 ‘K-콘텐츠산업은 극단적 국부창출산업’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이상적인 브랜드성을 가진 콘텐츠IP가 OSMU를 통해 그 생명력을 지속시키게 되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충성도가 높아진 이후 팬덤이 형성된다.

그럼 이 팬덤은 콘텐츠IP가 탑재된 상품의 적극 소비군으로 변모한다. 콘텐츠IP 연관 산업 License를 통한 OSMB(One Source Multi Business)는 극단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적 수준의 연예인 출연 광고, PPL(Product Placement) 등을 통한 브랜드 마케팅도 연관 산업 제품 판매,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K-드라마에 노출된 농축수산물, K-pop 아티스트가 입는 의류는 일시적 품귀현상까지 만들어 낸다. 여기에 더하여 브랜딩된 콘텐츠IP Licensing을 통한 연관 산업 마케팅 전략을 취한다면 그 부가가치는 배가될 것이고 여기서 콘텐츠 창·제작 기업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콘텐츠IP 부가가치로 피드백된다.

K-콘텐츠의 해외 진출 경쟁력은 당연히 웰메이드의 재미있는 콘텐츠 창·제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후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비즈니스 타깃 국가를 대상으로 ①국가별 관련 법·제도 파악 ②현지 국가 콘텐츠IP 등록, 출원 ③창·제작된 K-콘텐츠 재미 전달 ④구성된 팬덤의 확장 ⑤현지 구매력 높은 바이어 네트워크 확보 및 신뢰구축 ⑥비즈매칭 ⑦해외 진출 계약별 사후관리 등 각 단위별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해외 국가별 문화코드 맞춤형 현지화도 필수다. 콘텐츠비즈니스는 바이어, 소비자 양측에서 깊은 신뢰가 우선해야 하므로 일회성 행사 혹은 비즈매칭으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K-콘텐츠 해외 진출에 대한 영역과 단계별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마련과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4. 정부 정책적 지원의 현황과 과제

앞서 언급한 K-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확보의 7가지 요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별 관련 법·제도 파악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년 4월부터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서비스(WelCon: welcon.kocca.kr)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 관련 법·제도부터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 및 진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콘텐츠마켓플레이스를 탑재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이트 리뉴얼 및 기업 DB 현황화를 진행하고 있어 2026년 하반기부터 더 많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현지 국가 콘텐츠IP 등록, 출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콘텐츠IP의 해외저작권 등록과 상표 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K-푸드와 K-콘텐츠 결합... 라면 3사, 글로벌 '면비디아'로 도약할까

농심·오뚜기·삼양, 해외 매출 본격 확대, 1분40초 완판 신화,
K-콘텐츠와 라면의 황금 조합
더피알=최현준 기자 K-콘텐츠와 K-푸드 열풍이 맞물리며 농심·
오뚜기·삼양 등 국내 라면 3사의 주가가 나란히 급등했다.
최종수정 2025.09.12. 16:42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넬름' 브랜드의 '우' 브랜드 라면이 농심이 물려보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하나증권은 농심의 올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31.1% 증가해 4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오뚜기도 글로벌 마케팅 확대(중략) 지난 3월부터 방단소년단 진과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중략)

출처: 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29 일부 발췌

전략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K-콘텐츠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K-콘텐츠 해외 현지 프로모션과 팬덤의 확장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존 해외 진출을 위한 B2B 행사에 더하여 콘텐츠 전시회, 콘서트 등 B2C 프로모션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다. 다만 해외 현지 B2C 행사의 경우, 비용 투입 대비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 세계 30개국 총 35개 재외 한국문화원과 KOCCA 해외비즈니스센터(2024년 기준, 25개소)를 축으로 하는 정기적인 K-콘텐츠 프로모션 행사를 지속하여 신규 팬덤 구성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조성된 팬덤의 유지와 확장도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 87개국 252개소에 지정·운영되는 세종학당의 약 21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K-콘텐츠를 사랑하는 팬층이다. 각국의 세종학당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팬덤 관리의 시작으로 보인다.

넷째, 바이어 네트워크 확보와 비즈매칭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간 26개국에 150회 이상의 B2B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유명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KOCCA비즈니스센터와 협업하여 매년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K-콘텐츠 엑스포 행사를 사우디아라비아(7월), 튀르키예(9월), 중국(8월), 폴란드(11월) 현지에서 직접 개최하여 2025년 약 500명 이상의 해외바이어 DB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되는 한류박람회가 캐나다(8월), 스페인(9월), UAE(11월)에서 진행된다. 한류박람회는 K-콘텐츠 팬덤을 기반으로 K-패션, K-관광, K-푸드, K-뷰티, K-스포츠 등을 각국에 소개하는 행사(B2C)로 현지 바이어와의 B2B 행사도 병행 개최된다.

향후 K-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과제는 ‘2030년 K-콘텐츠 해외 진출 2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웹메이드 콘텐츠 창·제작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의 강화’로 축약한다.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자국 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하는 등 현지 콘텐츠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벤치마킹하여 대만은 ‘TAICCA’, 태국은 ‘THACCA’를 설립했으며, 일본 역시 진흥기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정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국 콘텐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K-콘텐츠 노출 기회를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경쟁 속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확대에 따라 유통 독점 및 수익 통제 등 콘텐츠 플랫폼 종속화 현상도 우려된다. 이 외에도 민간기업의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과제는 수없이 많다. 정부는 K-콘텐츠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경로를 열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과거 1990년대 J-컬처가 해외 시장을 압도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그 시절은 추억이다. 관련 기업의 노력과 함께 체계적인 진흥 정책이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한다면 K-콘텐츠산업은 극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국가핵심산업으로 완성될 것이다. 100년의 성장을 기억해 본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콘텐츠, 위기 속에서 '다음 레벨'을 묻다

조영신 동국대학교 대우교수, 미디어산업평론가

K-팝과 달리 K-드라마는 탈아시아를 못하고 있고, K-영화는 한국을 넘지 못해
흥미로운 비주류 콘텐츠에 머물러 있는 K-드라마의 보편성 확보와
로컬 OTT의 균형잡힌 성장으로 다양성을 확보하여 생존 경쟁을 높여야
IP 사업에 최적화된 K-애니라는 신성장 모델을 발굴해야

-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 중 한국 콘텐츠 점유율 11~13%로 전체 3위권
- 2022년 드라마 제작 편수 150여 편 → 100여 편 내외로 감소 및 저예산 체제로 전환
- 넷플릭스가 IP를 독점할 수 없도록 국내 생태계를 활성화시켜야



K-콘텐츠, 잔치는 시작되었는가

요즘 K-콘텐츠 이야기를 하려면 왠지 모를 뿌듯함, 이른바 ‘국뽕’부터 차오르는 게 사실이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전 세계 스타디움을 팬들로 가득 채우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은 녹색 체육복과 달고나 뽑기를 전 지구적 밈(meme)으로 만들며 넷플릭스에서 94개국 1위를 차지했다. 이 열풍은 2025년 <Kpop Demon Hunters>(이하 케데헌)으로 재점화되었다. 소니 픽처스가 만들고, 넷플릭스가 유통한 이 <케데헌>은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시청시간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OST는 각종 음원 차트의 1위 자리를 장기 점령했다. 이로써 K-컬처가 할리우드의 핵심 IP 소스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미국을 제외하고 TV와 영화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전 세계에 K-콘텐츠 신화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 되었다. 세상은 한국 콘텐츠에 덧씌워진 장막을 걷어냈고, ‘메이드 인 코리아’ 혹은 ‘메이드 바이 코리아’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취향’이자 ‘믿고 보는 브랜드’가 된 것이다.

이 눈부신 성공은 K-콘텐츠를 거대한 산업 엔진으로 만들었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 2024년에는 15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이미 가전제품이나 이차전지 등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주력 제조업 품목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K-콘텐츠는 이제 강력한 후방 산업 효과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한 떡볶이와 치킨은 전 세계인의 간식이 되었고, 아이돌이 바른 립스틱은 다음 날 품절 사태를 빚는다. K팝 댄스를 배우기 위해,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으며, 전 세계 세종학당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K-콘텐츠가 음식, 패션, 뷰티, 관광, 교육 등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대한 동력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화려한 잔칫상이 차려진 지금, 축배를 들기엔 아직 이르다. 오히려 더 냉정해져야 할 때다. K팝의 최전선은 ‘K’의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위기 속에서 ‘팝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기존의 K팝 산업 시스템이 아닌 글로벌 팝 시스템으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다행히 수년간 쌓아온 자본과 경험은 이 전환기를 헤쳐나갈 체력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K영화는 팬데믹 이후 K드라마의 위상을 가져온 넷플릭스 때문에 극장 시장의 붕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치솟는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해 영화 생산 자체가 급감하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지금 영화계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양질의 영화 제작 편수를 다시 늘려 관객이 극장을 찾을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작에 참여하는 LP(제한적 출자자)에게 세제 혜택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얼어붙은 투자 시장의 물꼬를 터주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처럼 각 분야가 저마다의 성장통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K드라마는 K팝이나 K영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품고 있다. K영화는 산업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 한번도 제대로 나가 본 적 없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내부의 문제다. 하지만 K드라마는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고 인지도를 확보한, 그러면서도 후방산업 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이런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K드라마 생태계의 몰락은 글로벌 시장 안착 실패라는 해당 산업군의 아쉬움과는 별개로 K뷰티 등 후방산업의 성장을 꺾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이 글은 가장 거대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K드라마, 즉 K영상 산업의 현실을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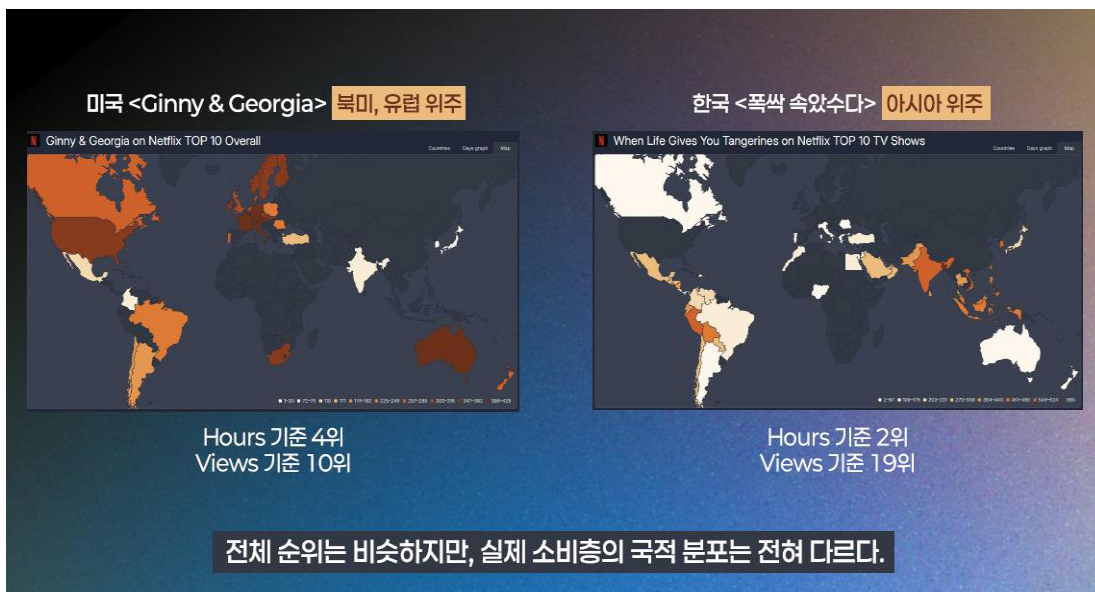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의 위기: 넷플릭스가 불러온 K-영상 산업의 역설

K-영상 산업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그 성공을 이끈 넷플릭스로부터 시작된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에 날개를 달아준 은인이지만, 동시에 그 날갯짓만으로 날도록 길들여 생태계의 자생력을 약화시킨 포식자이기도 하다. ‘넷플릭스발 위기’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❶ 우리는 글로벌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아시아 콘텐츠라고 한다.

우리 콘텐츠가 약진한 건 분명하다.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1만여 편의 드라마/애니/예능 중에서 한국 콘텐츠는 대략 1,000~1,100편 내외로 대략 11~1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편수로만 치면 5,000편 내외인 미국 콘텐츠와 2,000편 내외의 일본에 이어서 3위권이다.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절대적이라고 치면 드라마 영역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사실상 북미에 이어 2위라고 봐도 무방하다. 단순히 편수가 문제가 아니다. 넷플릭스 시청시간 기준 TOP100의 점유율을 보면 2023년 16% 내외에서 25년 상반기에는 25%를 기록하고 있다. 5,000편 정도의 미국 콘텐츠 중에서 TOP100에 올라간 콘텐츠가 대략 60편 내외로 1% 내외에 불과한 반면에, 한국 콘텐츠는 총 1,000여 편 중에서 2%에 해당하는 20여 편이 TOP100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우상향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전 세계가 사랑하는 콘텐츠라고 할만하다.

하지만 실제로 시청자 분포를 보면 미국 콘텐츠와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Ginny&Georgia로 대표되는 미국 콘텐츠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약하다. 반면에 2025년 한국의 대표 콘텐츠였던 <폭삭 속았수다>는 아시아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유럽과 북미에서는 반응이 약하다(색깔이 진할수록 TOP10에 오래 노출되었다). 캐나다에서는 초기 한두 개의 에피소드만을 보다가 시청을 멈추었고, 미국은 아예 TOP10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우리 콘텐츠 중에서 전 세계가 열광했던 콘텐츠는 <오징어 게임>이 유일하다. <더 글로리>를 비롯해서 대부분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는 북미 시장에서는 아직 관심권에 두지만 적극적으로 시청하지 않는 콘텐츠였다. 서구권 주류 시청자들에게 K드라마는 아직 ‘흥미로운 비주류 콘텐츠’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는 K드라마가 가진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이 호기심을 끈 결과다. 특수성이 익숙함이 되어 보편적 콘텐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는 시장에서도 분명하게 반응하다. <케데헌> 때문에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주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보편적인 콘텐츠로 취급받는 아시아에서도 지불 능력이 낮아 ‘비싸진’ 한국 콘텐츠를 구매하길 꺼려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넷플릭스가 아니면 저 정도의 인기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넷플릭스 때문에 글로벌 인지도를 얻었지만, 넷플릭스가 없다면 그 글로벌 인지마저도 사라질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라는 말이 된다.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서 접하는 상황과 콘텐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생각보다는 크다. 이 지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K드라마 지원 정책은 엉뚱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❷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사이에 제작 편수는 감소하고 다양성은 실종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넷플릭스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방송사와 로컬 OTT는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제작비를 상향하고 오리지널 경쟁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처참히 무릎을 꿇었다. 시청자는 TV를 시청하지 않고, 국내 OTT를 떠났다. 그 사이에 방송사와 로컬 OTT는 드라마 제작 편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2022년 150여 편에 이르던 드라마 제작 편수는 100편 내외로 감소했고, 그마저도 저예산 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제작 편수가 줄어들자,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된 스타 작가, 감독, 배우와 ‘안전한’ 장르(로맨틱 코미디, 스릴러)에만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2~3년 뒤에 한국 방송시장에선 다양성이 사라진다. 결국 신인 창작자들이 등단할 기회는 사라지고, 다양한 장르적 시도가 봉쇄되면서 K드라마의 창의적 토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뭘 소리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2~3년 전에 생산된 것이기에 과거 우리가 화려한 실적을 올릴 때 만들어진 콘텐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벌어지는 위기는 2~3년 뒤에야 시청자가 알아챌 수 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위암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벌어져 체감하지 못하는 폐암이나 간암, 췌장암에 가까운 것이 현재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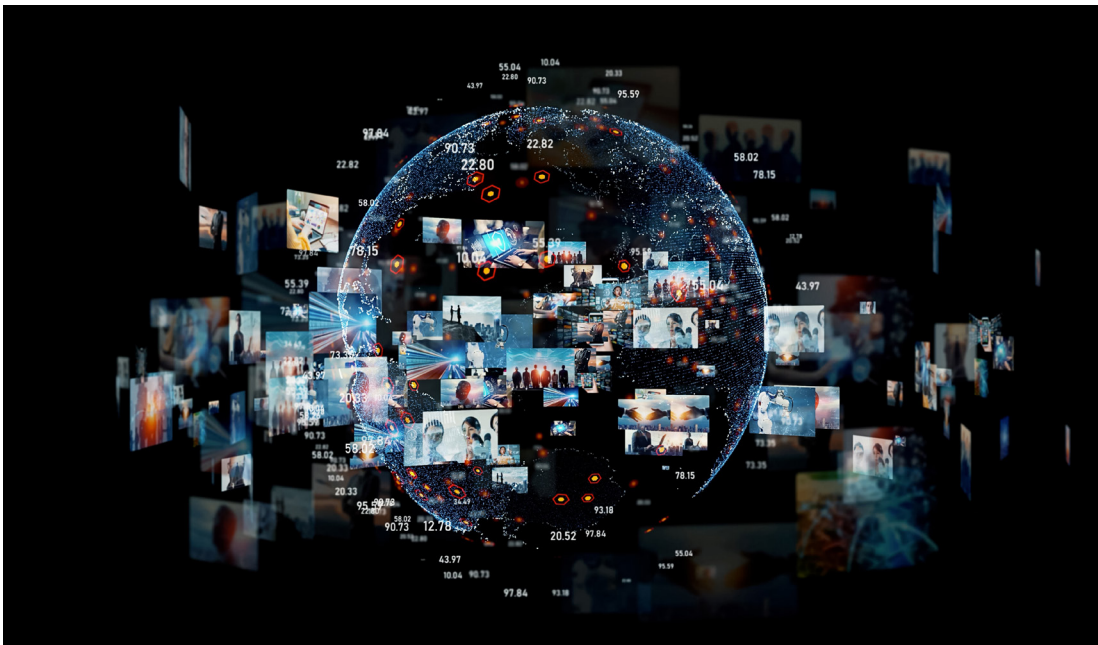
❸ 새로운 수익 모델이 없어서 IP만 내세우는 현상

과거 방송사 중심의 드라마 산업은 PPL, VOD, 해외 판권 판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IP(지식재산권)를 독점한다. 국내 제작사는 정해진 제작비를 받을 뿐, 콘텐츠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제작사를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시키고, IP를 활용한 2차 사업(굿즈, 게임, 리메이크 등)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족쇄다. 문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넷플릭스의 문전에서 피켓을 들고 외친다고 한들 바뀌지 않는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밖에서 고함치는 이들만 모를 뿐 안에서 작업하고 있는 제작사들은 모두 안다. 실사 드라마의 IP 수익이 얼마나 낮은 확률 게임인지 말이다. 실사 드라마의 부가 판권 수익은 리메이크하는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리메이크를 가져올 확률은 100편 중 한편 정도도 되지 않는다. 이 낮은 확률을 가지고 IP를 보유하겠다고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부할 제작사는 없다. 돌아서서 IP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IP를 보유한 대가로 넷플릭스 외에 공급을 하는 조건과 IP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조건 중 제작사의 선택은 명확하다. IP를 포기하더라도 넷플릭스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출연진 등이 다 넷플릭스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감안하고 IP가 아니라 IP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음악 시장은 유튜브란 글로벌 플랫폼을 만나서 기존의 음원 수익이 아니라 그보다 몇 배는 높은 글로벌 공연 수익을 창출했다. 반면에 드라마는 넷플릭스란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만나서 여전히 기존의 판매 수익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④ 창작 기반의 붕괴: 불안정한 고용

제작 편수 감소와 양극화는 곧바로 산업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로 이어진다. 소수의 스타급 인력은 천문학적인 보상을 받지만, 대다수의 스태프와 신인, 조단역 배우들은 줄어든 일자리와 불투명한 미래에 고통받고 있다. 특히 현장을 지탱하는 촬영, 조명, 미술, 음향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생계를 위해 업계를 떠나는 현상은 K드라마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험 신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다. 제작 편수가 늘어나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조건이 되면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 반면에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다양성이 줄어든다면 불안정한 고용으로 유발되는 창작 생태계의 붕괴는 K드라마 시장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넷플릭스를 상수로 놓고 푸는 생존 방정식

이러한 위기 앞에서 ‘넷플릭스를 몰아내자’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를 세계에 알린 일등공신이며, 이미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우리는 넷플릭스를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정하고,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영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❶ ‘탈아시아 연대’로 글로벌 시장을 뚫어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 시장은 ‘한국적인 특수성’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보편적인 이야기’에 반응한다. 이제는 일본, 대만,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동 기획·제작을 통해 ‘아시아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자본과 크리에이터, 배우들이 결합하여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서사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아시아라는 틀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시아 연대를 통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가 연대해서 글로벌 콘텐츠를 만든다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시장 규모가 큰 우리가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공동 제작을 해서 그 나라 시장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아시아연대의 모델이 될 수 없음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자본과 IP를 아시아와 연대하고, 우리의 제작 역량으로 글로벌 시장용 콘텐츠를 만들자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로컬 OTT의 성장으로 ‘다양성 허리’를 키워라

다양성과 제작 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컬 OTT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차 시청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TV 시장의 시청률이 높아지고 광고 수익이 늘어서 제작 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 그보다는 티빙과 웨이브로 나뉘진 로컬 OTT가 합병되어 규모를 키우고 재무 건전성을 높인 뒤에 넷플릭스가 선택하지 못한 콘텐츠를 공급해 주는 형태가 훨씬 현실적이다.

넷플릭스 1사 체제가 아니라 넷플릭스-로컬 OTT 간의 유효 경쟁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면 방송사-로컬 OTT-넷플릭스 외 글로벌 OTT / 글로벌 로컬 OTT 간의 결합을 통해 제작 편수의 급락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성으로 연결된다. 이들이 국내 시청자들의 세분화된 취향을 만족시키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할 수 있어야만, K-드라마 생태계의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다. 이는 신인 창작자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고, 산업 전체로는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역시 단순 제작비 지원을 넘어, 로컬 OTT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IP 확보,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대륙에서

현재의 실사 드라마 제작 시스템하에서 글로벌 플랫폼으로부터 IP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설사 IP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확률이 낮다. <오징어 게임>만을 놓고 IP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IP를 확보했을 때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곳을 타겟팅 해야 한다. 시각을 바꾸고 판도 바뀌어야 한다. 바로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대륙에서 IP 확보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은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비용으로 오리지널 세계관과 캐릭터 IP를 창출할 수 있으며, 굿즈, 게임, 테마파크 등 2차 사업으로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Kpop Demon Hunters>가 증명했듯, K-컬처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의 성공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그 IP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영유아 애니메이션 시장을 제외하곤 시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애니메이션 시장을 봐야 한다. 다행히도 넷플릭스와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출시되는 웹툰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출시되기 때문에 한국의 훌륭한 웹툰이 애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시장에서 성장할 기회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는 다시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시청자들이 볼 수 있다.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말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족 시장을 키우고, 이 언저리에서 한국 애니의 자생적 성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사람’이 남는 산업: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창작 기반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특히 작품의 성공에 기여한 모든 창작자가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할리우드 작가·배우 조합 파업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던 ‘스트리밍 수익 분배(residuals)’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착시키고, 스태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⑥ 산업의 '레벨업': AI를 산업 전반에 도입하라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을 재편할 순 없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는 다른 접근을 선제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더구나 자국의 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로서는 글로벌 시장의 규모를 키워야 콘텐츠 제작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구매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격이라고 본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AI가 튀어나온다. 다만 AI를 단순히 시나리오를 쓰는 '창작의 도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상 산업 전체를 혁신하는 '산업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시나리오 분석, 캐스팅, 예산 책정 등 사전 제작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VFX, CG, 편집, 번역 등 후반 작업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전 세계 시청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AI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도입하는 것은 비용 절감을 넘어, K-콘텐츠 산업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레벨업'의 열쇠가 될 것이다.

우리엔겐 아직 기회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겨우 인지도를 확보한 K-드라마가 K-팝이 개척한 그 길을 이어받을 수 있길 바란다. 사업자는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시도하면서 벽과 부딪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다. 탁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이가 다름 아닌 우리의 정부고, 기재부도 국내 시장의 성과가 아니라 후방 산업의 성장 수단으로서 K-드라마를 봐 주셨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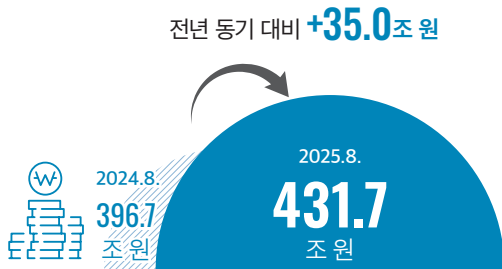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정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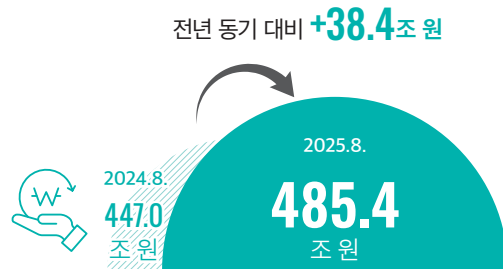
2025년 8월 기준

총수입·총지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53.7 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3.4조 원(적자 확대)**

관리재정수지

88.3 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4.1조 원(적자 확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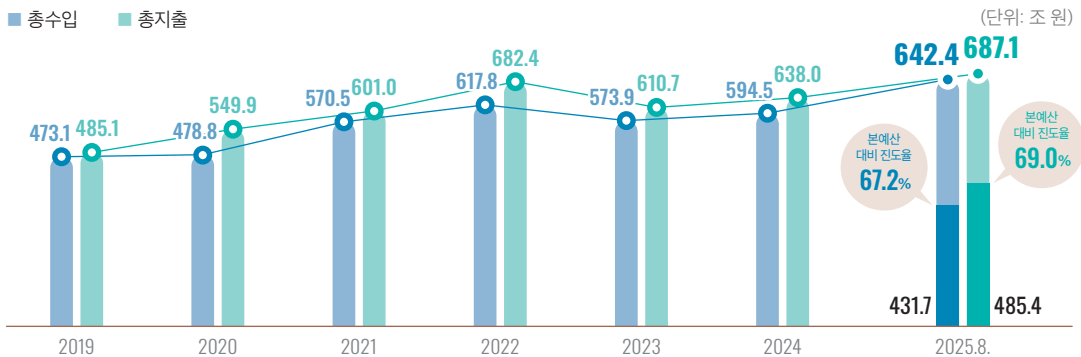
34.6 조 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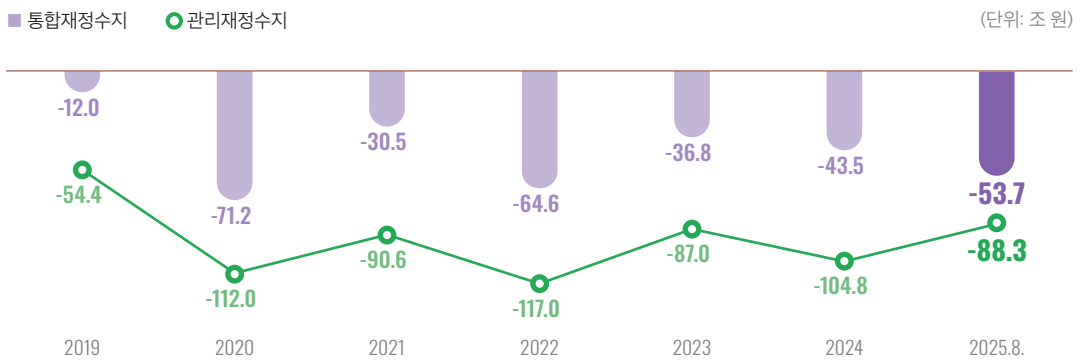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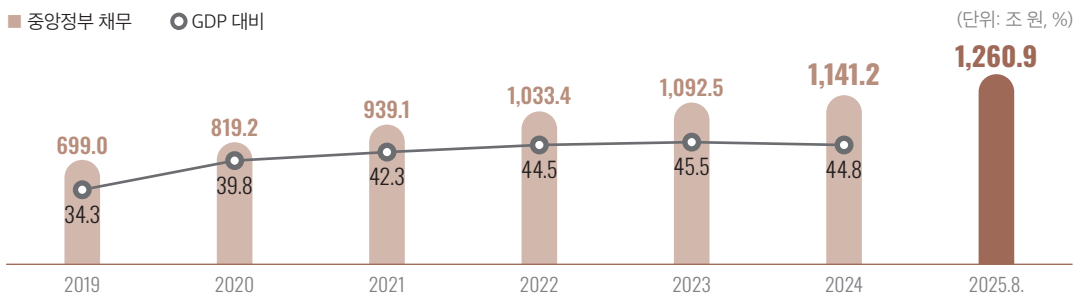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0.



주: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0.



주: 1) 2024년까지는 결산, 2025년은 본예산 기준
2) 중앙정부 채무 기준
3)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4)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수정 반영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0.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	총지출 ⋮	수지 ⋮
미국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4조 6,910억 달러	6조 6,643억 달러	1조 9,733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6.8%	6.0%	4.0%
독일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2,732억 유로	3,190억 유로	458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5.2%	6.5%	14.5%
일본 7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4개월 차)	규모	15조 8,608억 엔	42조 2,545억 엔	26조 3,937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8.7%	3.0%	22.5%
프랑스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2,217억 유로	3,477억 유로	1,259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5.5%	-0.7%	-10.1%
영국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5개월 차)	규모	4,774억 파운드	5,612억 파운드	838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6.3%	8.6%	24.0%
대한민국 8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431.7조 원	485.4조 원	53.7조 원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8.8%	8.6%	6.7%

**자료 :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August 2025(9.11. 발표)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August 2025(9.23. 발표)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9.19.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août 2025(10.2.발표)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August 2025(9.19. 발표)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 미국

- 연준, 기준금리 25bp 인하(4.00~4.25%)
-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대형트럭 등 새로운 관세 대상 발표
-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및 일본 투자는 '선불'로 규정
- 연방정부, 10월 1일 섀다운 돌입

2 | 독일

- 정부, 재생에너지 부문 고정가격 보조금 단계적 중단 추진
- 5대 경제연구소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나, OECD는 하향 조정

3 | 일본

- 이시바 총리 사임 이후 국채 금리 급등, 중앙은행은 불확실성 하에 금리 동결
- 통계청, 미국 관세 합의에 대응하고자 전략투자기구를 신설하여 투자 추진

4 | 프랑스

- 국가 신용평가기관 Fitch, 프랑스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
- 프랑스 8개 주요 노조, 긴축재정에 반대하며 전국적인 파업 돌입

5 | 영국

- 영란은행, 높은 물가상승률에 기준금리 4%로 동결
- 영국, 2025~26회계연도 5개월간 차입금 예측치보다 크게 상회

6 | 중국

- 마·중 4차 경제무역 회담
-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국제기구

1 | IMF

- IMF 협의단, “대한민국 202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완료
- “국가채무 인식과 정책기대(Perceptions of Public Debt and Policy Expectations: Evidence from Cross Country Surveys)” 워킹페이퍼 발간

2 | OECD

- “인공지능(AI)으로 관리하기(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 발간
- “OECD 중간 경제 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주요국

미국

9.17. 연준, 기준금리 25bp 인하(4.00~4.25%)¹⁾²⁾³⁾

-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4.00~4.25% 수준으로 9개월 만에 25bp 인하

* Stephen Miran 이사는 상원 인준(9.15)을 거쳐 FOMC 회의 참여 및 50bp 인하 의견을 제시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고 통보(8.25) 받았던 Lisa Cook 이사회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9.15)으로 회의 참석 및 투표권 행사(12명 위원 중 총 11명이 25bp 인하에 투표)

- 노동시장 고용 증가세 둔화 및 실업률 소폭 상승을 고려한 것으로, 이에 따른 위험 균형의 변화에 맞춰 금리 인하

-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2025년 6월 1.4% → 9월 1.6%), 실업률(4.5%)과 물가상승률(3.0%) 전망 유지

- Fed의 이번 결정은 이중책무* 중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왔던 기초에서 고용시장 안정으로 일부 선회한 것으로 평가

* 이중책무(dual mandate): 물가 안정(price stability)과 고용 극대화(maximum employment)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의미하며, 미국 연방준비법에 따라 연준이 달성해야 하는 통화 정책의 기본 원칙

9.25.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 대형트럭 등 새로운 관세 대상 발표⁴⁾⁵⁾

-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1일부터 특허 의약품(100%), 대형트럭(25%), 주방 수납장(50%), 장식 가구(30%) 등에 관세 부과 발표

- 특허 의약품의 경우, 미국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을 경우 모든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예고(미국 내 제품 생산 기업 관세 면제)
- 백악관 관계자는 일본, EU와 같이 협상이 체결된 상대국에는 15% 상한을 준수할 것으로 밝혔으나, 한국의 경우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100% 관세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

* 하워드 러트닉 재무장관은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1)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50917a.htm>

2)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50917b.htm>

3) <https://www.reuters.com/business/fed-lowers-interest-rates-signals-more-cuts-ahead-miran-dissents-2025-09-17/>

4) <https://www.reuters.com/business/trump-says-us-will-impose-25-tariff-heavy-trucks-imports-october-1-2025-09-25/>

5) <https://www.nytimes.com/2025/09/25/business/economy/trump-tariffs-pharmaceuticals-furniture-trucks.html>

9.26. 트럼프 대통령, 한국 및 일본 투자는 '선불'로 규정⁶⁾⁷⁾

-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받는 투자는 선불이라고 언급
 - 이미 협상이 체결된 일본과 달리, 한국은 7월 말 한미 간 구두로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진행 방식에 대한 양국의 이견으로 협상이 표류 중
- 특히 한국은 대미 투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및 '상업적 합리성'을 요구 중

*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 거래 당사자 간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미리 정한 환율로 교환하고 이후 원금을 재교환 하는 거래로, 중장기 외화자금 조달 및 환리스크 헤징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10.1. 연방정부, 10월 1일 섯다운 돌입⁸⁾⁹⁾

- 미국 연방정부는 현지 시각 10월 1일 0시 1분을 기점으로 섯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돌입
 - * 정부 섯다운(Government Shutdown): 정부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로, 정부의 예산안이 10월 1일(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거나,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상황
 - 협상 최종일(9.30)에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CR)이 부결되었으며,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부결
 - 트럼프 1기 행정부(2018.12) 이후 7년 만의 섯다운으로, 필수 인력(군대, 국경수비대, 항공교통 통제 등)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약 75만 명 강제 무급휴가 시작
- 섯다운의 배경은 '오바마케어'* 등 정부 지출과 관련한 공화당(여당)과 민주당(야당)의 대립
 - * 오바마케어(Obamacare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층·취약 계층의 무상 의료보험 대상자 확대 등을 추진
 -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
 -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및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 복구 등 정부 지출 확대를 요구

6)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trump-says-south-korea-japan-will-pay-billions-upfront-investment-2025-09-26/>

7) <https://www.nytimes.com/2025/09/26/business/trump-tariffs-asia.html>

8) <https://www.reuters.com/world/us/us-government-begins-shut-down-most-operations-after-congress-fails-advance-2025-10-01/>

9) <https://www.nytimes.com/2025/09/30/us/politics/government-shutdown-deadlock.html>

독일

9.15. 정부, 재생에너지 부문 고정가격 보조금 단계적 중단 추진¹⁰⁾

• 경제에너지장관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이 담긴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10대 실행 계획'을 발표

- 정부는 2000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해 주는 고정가격 매입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 그러나 연간 16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지출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자 EU 지침에 맞추어 차액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을 제기

* 차액계약제도: 발전단가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차액을 보전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제도

- 보조금 축소는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전력망 확충과 투자 비용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 2045년까지 전력망 확충과 투자에 총 6,700억 유로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 장기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전력망 불균형 해소와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차등 인센티브 부여(Regional Bonus Scheme), 용량기반 요금제(capacity-based grid charges)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시

9.23. 5대 경제연구소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나, OECD는 하향 조정¹¹⁾

• 5대 경제연구소*는 2025년 성장률을 0.1%에서 0.2%로 높이고 2026년 1.3%, 2027년 1.4%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하방 위험을 동시에 경고

* IFO 경제연구소, 독일 경제연구소(DIW), 쾰른 세계경제연구소(IfoW), 할레 경제연구소(IWH) 독일경제물리연구소(RWI)

- 국방 및 인프라 지출 확대와 일부 산업 회복세가 성장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2025년 2분기 GDP -0.3% 역성장, 실업자 수 증가,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등을 하방 위험 요인으로 분석
- OECD는 독일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0.3%, 2026년 1.1%로 성장률을 전망했으나, 6월 전망치 보다 각각 0.1%p 하향 조정

10)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boards-policy-regulation/germany-scrap-fixed-tariffs-new-renewables-pivot-market-support-2025-09-15/>

11)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german-economic-institutes-revise-up-2025-growth-forecast-02-sources-say-2025-09-23>



- 글로벌 무역 둔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며, 낮은 생산성·투자 부진 등 구조적 제약이 성장률을 압박
- 독일의 엄격한 채무 준칙(debt brake)으로 필요한 투자 확대에 제약이 존재하고, 노동시장 개혁·규제 완화·생산성 제고 없이는 중기성장을 회복이 제한될 것임을 지적

9.19. 이시바 총리 사임 이후 국채금리 급등, 중앙은행은 불확실성 하에 금리 동결¹²⁾

- 총리 사임 이후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는 3.285%까지 상승하고, 2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67%에 도달하는 등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변동성은 확대
 - 총리 사임에 따른 정책 공백과 재정 확대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투자자 신뢰가 약화
 - 국채 수요 감소와 함께 엔화 약세가 동반되며 금융시장 불안 확대
- 일본중앙은행은 정치적 리더십 공백,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금리를 0.5%로 동결
 - 일부 위원들이 0.75% 인상을 제안했으나, 다수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현상 유지를 선택
 -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남아있으나, 후임 총리의 정책 방향과 대외 여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9.26. 재무성, 미국 관세 합의에 대응하고자 전략투자기구를 신설하여 투자 추진¹³⁾

- 미국과 합의한 5,500달러 규모의 투자패키지 집행을 위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내 전략투자기구를 신설
 - 반도체·금속·의약품·에너지·조선 등 9개 분야를 포함한 핵심 산업에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수출투자보험공사(NEXI)가 지분투자·대출·보증을 실시
- 정부는 국제협력은행의 규정을 개정하여 투자 범위에 제한이 있었던 선진국 내 자동차·제약 등의 산업도 투자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 투자기구 창설을 통해 기업들이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목표
 - 마일 무역협정에 따라 수시(project-by-project) 집행방식으로 진행되며 목표 시한은 2029년 1월로 설정

12) <https://www.reuters.com/business/ishibas-departure-gives-boj-pause-thought-rate-hikes-2025-09-09/>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boj-keep-interest-rates-steady-tariff-us-slowdown-risks-loom-2025-09-18/>

13) <https://www.reuters.com/business/japan-launch-facility-support-550-billion-investment-under-us-trade-deal-2025-09-26/>

프랑스

9.12. 국가 신용평가기관 Fitch, 프랑스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¹⁴⁾

- 프랑스의 재정 상황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Fitch가 프랑스의 재정건전성 회복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춰 평가
 - 이는 프랑스가 3대 세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 중 역대 최저 수준
- 막대한 재정적자로 프랑스의 부채는 매년 증가 전망
 - 프랑스의 부채비율은 현재 약 114%이며 2030년에 약 120%를 넘을 것으로 예측
 - 이는 유럽 연합에서 가장 높은 수준
- 신용등급 강등으로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년 만에 2.85%에서 3.5%로 상승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한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불신임 투표로 내각 총사퇴

9.18. 프랑스 8개 주요 노조, 긴축재정에 반대하며 전국적인 파업 돌입¹⁵⁾¹⁶⁾

- 프랑스의 8개 주요 노조는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가 추진한 긴축재정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에 운집
 - 지난 7월,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는 내년도 예산지침으로 440억 유로 규모의 재정감축 발표
 - 이에 프랑스 민주노동연합(CFDT)과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등 8개의 주요 노조는 공공서비스 확대, 조세 정의의 확립(부자 증세), 64세 정년의 폐지, 실업 수당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 프랑스 내무부는 프랑스 전역에서 6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집계
 - 특히, 운송 노동자의 대규모 파업으로 파리의 TER 열차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운행 시간을 감축하였으며,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1/3 역시 파업에 돌입

14)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5/09/12/dette-fitch-fait-perdre-son-double-a-a-la-france_6640683_823448.html

15)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5/09/18/journee-de-mobilisation-du-18-septembre-des-manifestants-entre-colere-et-desillusion_6641777_823448.html

16) https://www.lemonde.fr/politique/article/2025/09/18/greve-du-18-septembre-les-syndicats-plus-que-jamais-motives-pour-faire-plier-le-nouveau-premier-ministre_6641704_823448.html



9.18. **영란은행, 높은 물가상승률에 기준금리 4%로 동결¹⁷⁾**

- 영란은행(BoE) 금융정책위원회(MPC)는 중기적인 물가 상승 압박으로 기준금리를 4%로 동결
- 영란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는 아직 물가 상승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향후 금리 인하는 점진적이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
- 8월의 물가상승률(3.8%)은 영란은행의 목표치(2%)보다 높은 수치로, 물가상승률 발표(9.17) 이후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
- 8월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식품, 레스토랑, 호텔의 가격 상승을 지목

9.19. **통계청, 2025~26회계연도 5개월간 차입금 예측치보다 크게 상회¹⁹⁾**

-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영국 정부가 2025~26 회계연도 5개월(4~8월) 동안 838억 파운드를 차입하였다고 발표
- 이는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이 같은 기간 동안 예측했던 차입금 규모(724억 파운드)보다 큰 규모
- 전문가들은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가 280억 파운드 이상을 조달해야 하며, 따라서 11월에 다시 한번 세금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전망
- 지난해 10월, 노동당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에서 400억 파운드 규모의 세금을 인상



17) <https://www.ft.com/content/bf022014-fbf5-48d4-8902-11500cf9be1d>

18) <https://www.ft.com/content/4c107fb5-92f2-4ad6-9d7c-0b958b946b6a>

19) <https://www.ft.com/content/0e3a0431-99e1-4269-a8f8-79e4890f7b30>

중국

9.15. 미·중 4차 경제무역 회담²⁰⁾

• 미국과 중국은 스페인에서 경제·무역 관련 협상 진행(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1차 협상 이후 4번째)

- 주요 현안은 일명 '틱톡 금지법'*으로, 양측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비공개

* 틱톡 금지법: 틱톡(TikTok, 영상 공유 플랫폼)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2025년 1월 미국 의회 통과)

• 고율 상호관세 부과, 미국의 AI용 반도체칩 등 첨단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 중국의 희토류 미국 수출 제한 등 기존 이슈들은 이번 회담에서 미논의

-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추후 두 정상 통화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9.22.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동결²¹⁾

*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인민은행이 결정하는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로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서 주요 상업은행들로부터 취합한 금리를 인민은행에 제출하면 인민은행은 산정된 LPR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발표

• 5년물 LPR은 3.5%, 1년물 LPR은 3.0%로 동결

- 5년물 LPR은 부동산담보 대출금리와 직결되며, 1년물은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됨

• 미 연준(Fed)의 금리 인하(9.17)로 인민은행의 정책금리 결정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높은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결정으로 비춰짐

• 투자·소비·수출 등 실물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하회함에 따라 추후 경기부양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



20) <https://www.reuters.com/world/china/us-china-reach-framework-deal-tiktok-trump-xi-speak-friday-2025-09-15/>

21)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leaves-benchmark-lending-rates-unchanged-fourth-month-sept-2025-09-22/>



9.23. IMF 협의단, “대한민국 202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완료²²⁾

- IMF 협의단은 202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위해 2025년 9월 11일부터 24일 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협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발표
 - 현재 보도자료의 내용은 협의단의 견해에 해당하며, 공식 보고서는 IMF 이사회(Executive Board) 승인 후 10월 중 발표될 예정
- 한국은 2025년 추경 등 단기적 재정 집행과 견고한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2025년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6년 1.8%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
 - 기대 인플레이션 및 물가 관련 리스크가 안정적이며, 충분한 정책 여력을 감안할 때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
- 다만 3%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생산성 제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대응, 자본배분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 성장잠재력 확충 조치가 필요
 -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하는 상황에서 장기 대규모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재개하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가속화 강조

9.29. “공공채무 인식과 정책 기대(Perceptions of Public Debt and Policy Expectations: Evidence from Cross Country Surveys)” 워킹페이퍼 발간²³⁾

- 13개국 27,000명 이상의 표본을 이용한 대규모 설문조사 방식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지식과 신념, 선호가 세금 및 지출정책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high-debt countries)일수록 국가채무 수준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 하는 한편 재정조정의 부담이 개인에게는 불균형적으로 전가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 과거 재정 긴축(fiscal consolidation) 경험이 많을수록 미래 경제전망은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감소
 - 한편 무작위 통제실험을 통해 응답자에게 자국의 채무 수준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채무가 안정적인 국가의 경우 증세에 대한 예측이 감소하였고, 채무가 증가하는 국가의 경우 지출 삭감에 대한 예상이 증가
- 국민의 채무 인식은 실제 경제지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고, 국가채무 수준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 등 재정정책 수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정정책 설계시 이를 고려할 필요

22) IMF 보도자료 NO.25/308(<https://imf.org/en/News/Articles/2025/09/23/pr-25308-republic-of-korea-imf-staff-completes-2024-article-iv-mission>)

23) Bianchi, Francesco, Era Dabla-Norris, and Salma Khalid, “Perceptions of Public Debt and Policy Expectations: Evidence from Cross Country Surveys”, 29.9.2025, IMF Working Paper(2025/197). International Monetary Fund(<https://doi.org/10.5089/9798229025751.001>)

OECD



9.18. “인공지능(AI)으로 관리하기(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보고서 발간²⁴⁾

-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힘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디지털 정부의 필수요소로 인식되며, 공공부문 전반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
 - OECD는 정부의 효과적인 AI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²⁵⁾ 구축을 목표로 국가 AI 활용 사례 200건을 분석하고 AI의 영향을 받는 영역 등을 식별하는 최초의 보고서 발간
- 초기 AI 도입은 공공 서비스, 시민참여 분야 위주이고, 정책평가 및 세무행정, 인사관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서 채택
 - AI 활용 사례의 57%가 자동화 및 간소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유형으로 조사되었고, 한국의 dBrain⁺ 시스템을 실시간 재정 데이터 분석 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언급
- OECD는 공공부문 AI 도입을 이끌 7대 핵심 요소*를 선정하는 한편 AI의 강력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보안 등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

* 거버넌스,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기술, 투자, 조달, 민간 파트너십

9.23.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²⁶⁾

- OECD는 2025년 전 세계 GDP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 대비 0.3%p 높은 3.2%로 전망하였으나, 2026년은 기존 전망치와 동일한 2.9%를 유지
 - 2025년 상반기는 관세 인상에 앞서 선적 등 무역량 증가, AI 관련 투자 확대 및 국가별 재정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경제 회복세 지속
 - 향후 관세 인상 영향으로 산업 생산량 감소, 소비 및 노동시장 둔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전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 3.3%에서 2026년 2.9%로 감소할 전망
- 주요국은 2026년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한국의 경우 2026년 2.2%로 지난 6월 전망치가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1.2%p 상승할 전망

24) IOECD(2025), Govern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ate of Play and Way Forward in Core Government Function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95de142-en>

25) OECD는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AI 플랫폼에 해당하는 OECD.AI(<https://oecd.ai/gov>)를 구축

26) OECD(2025),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5: Finding the Right Balance in Uncertain Tim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7b10c01-en>

OECD 중간 경제전망 GDP

(단위: %, %p)

국가명	2024	2025			2026		
		6월 (A)	9월 (B)	조정폭 (B-A)	6월 (A)	9월 (B)	조정폭 (B-A)
전세계	3.3	2.9	3.2	0.3	2.9	2.9	-
G20	3.4	2.9	3.2	0.3	2.9	2.9	-
주요국							
미국	2.8	1.6	1.8	0.2	1.5	1.5	-
캐나다	1.0	1.0	1.1	0.1	1.1	1.2	0.1
독일	△0.5	0.4	0.3	△0.1	1.2	1.1	△0.1
프랑스	1.1	0.6	0.6	-	0.9	0.9	-
이탈리아	0.7	0.6	0.6	-	0.7	0.6	△0.1
영국	1.1	1.3	1.4	0.1	1.0	1.0	-
일본	0.1	0.7	1.1	0.4	0.4	0.5	0.1
한국	2.0	1.0	1.0	-	2.2	2.2	-

자료: OECD(2025),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p.5.를 토대로 작성



10

2025
October

Fiscal Calendar



재정

2025년 8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기획재정부, 9.30.)

- 2025년 8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260.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조 원 증가하면서 계획대비 진도율 70.1%
- 8월 당월 국세수입은 28.2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조 원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법인세는 상반기 반도체 실적개선 및 가결산 의무화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3.4조 원 증가하였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증가 및 하반기 성과급 확대에 따른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으로 0.6조 원 증가,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감소하였으나 환급이 줄면서 0.3조 원 증가



경제

2025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한국은행, 9.24.)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월 중 110.1로 전월 대비 1.3p 하락
-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 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중 현재생활형편CSI(96)는 전월과 동일하고 생활형편 전망CSI(100)는 전월 대비 1p 하락하였으며,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경기판단 CSI(91) 및 향후경기전망CSI(97)가 전월 대비 각각 2p, 3p 하락

2025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 10.2.)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2.1% 각각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서비스,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며 전체 2.1%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9% 하락

재정

- 2025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1월

재정

- 2024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4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3월

재정

- 2024년 결산 감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4월

재정

- 2026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4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경제

- 통계청 2025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 (Economic Outlook) 발표

5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6월

재정

-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202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통계청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7월

재정

-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5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8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9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0월

경제

- 통계청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Economic Outlook) 발표

11월

재정

- 2026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12월



기업가들, 뉴욕을 예술의 메카로 만든다

01 병사와 웃고 있는 소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1657년, 캔버스에 유채, 50.5x46cm, 프리 컬렉션, 뉴욕

역사적으로 예술의 발전에는 부를 거머쥔 이들의 경제적인 후원이 있었다. 한 나라의 황제나 귀족, 종교 수장, 거상 등 그들의 신분은 다양했지만 그들의 후원은 분명 예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유럽에 비해 비교적 늦었던 뉴욕이 근현대에 들어 문화적으로 비약할 수 있었던 것도 기업가들의 경제적인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글·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 세종사이버대 교수



02 세인트 제임스 공원의 산책터

토마스 게인즈버러, 1783년, 캔버스에 유채, 120.7x147cm, 프리 컬렉션, 뉴욕



03 공장 굴뚝이 있는 풍경

바실리 칸딘스키, 1910년, 캔버스에 유채, 66.3x82cm,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예술 투자를 목적 삼아 뉴욕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다. 그동안 클래식 음악과 고전 미술관은 유럽 도시들의 독점적 문화 자본으로 여겨져 왔다. 뉴욕이 세계 경제의 수도라면, 문화의 수도는 런던이나 파리, 로마, 빈, 베를린 같은 유럽의 전통적 도시들이라는 공식이 암암리에 존재해 왔던 셈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공식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예술을 탐구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점점 더 뉴욕을 찾고 있는 이유는 무얼까.

사실 뉴욕은 런던, 파리, 로마, 빈에 비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진 도시다. 1625년경 지금의 로어 맨해튼을 중심으로 처음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서기 43년에 로마군에 의해 건설된 도시다. 기원전 753년에 도시의 역사가 시작된 로마와는 더 비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뉴욕은 역사, 문화적으로는 유럽 도시들

에 비해 뒤떨어진 듯한 인상을 준다. 하지만 뉴욕 미술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이 그저 편견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제외하고서라도 뉴욕에는 뉴욕 현대 미술관(MOMA), 구겐하임 미술관, 프리크 컬렉션, 휘트니 미술관, 노이에 갤러리 등 고전과 근현대의 걸작들을 골고루 소장한 미술관들이 넘쳐난다. 또 뉴욕에서 두 시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필라델피아에는 필라델피아 미술관과 함께 반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인상파의 보고가 있다. 반스 파운데이션은 단일 미술관으로는 가장 많은 르누아르의 작품을 소장한 미술관이다. 이곳은 르누아르와 세잔의 그림을 각각 191점, 52점 소장하고 있다. 이 엄청난 컬렉션들은 대부분 20세기 초반의 미국 기업가들이 나서서 이루어낸 미술관들이다.

프릭과 구겐하임, 성공한 기업가들의 유산

뉴욕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프리컬렉션은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 회화와 조각, 공예품들을 폭넓게 소장한 우아한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은 '진주 귀고리 소녀'로 잘 알려진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그림 3점을 비롯한 렘브란트, 반다이크, 앵그르, 터너, 다비드, 게인즈버러 등 유럽 화가들의 수준 높은 회화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언뜻 보면 귀족의 저택 같은 인상을 주는 이 미술관은 실제로 미국 최고 갑부의 저택이었다. 프리컬렉션의 설립자인 헨리 클레이 프리크(1849~1919)은 피츠버그 출신의 기업가로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가장 부자로 손꼽힌 인물이었다. 그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의 제철 공장에 코크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고 당시 뉴욕의 거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유럽 회화 컬렉션에 뛰어들었다.

프리크와 여타 컬렉터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프리크는 인상파나 근현대 그림에 크게 치우치지 않은 컬렉터였다는 점이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 프랑스 화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상파는 20세기 초반까지 그다지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작품값 역시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었다.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컬렉터들은 유럽 시장에서 비교적 값싸게 거래되는 인상파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사 모았다. 오늘날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필적하는 인상파 컬렉션을 갖추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반면, 프리크는 인상파 못지않게 렘브란트나 루벤스 등 고전 회화를 선호했다. 프리크는 1919년 자신의 저택을 맨해튼에 지을 때부터 이 저택을 훗날 미술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프리크와 그의 아내 아델레이드가 각각 1919년과 1931년 사망한 후, 그의 딸 헬렌은 저택을 미술관으로 탈바꿈했다.

04 꿈꾸는 말

프란츠 마크, 1913년
종이에 수채화,
39.6x46.8cm,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프릭 컬렉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물 자체부터 탁월한 예술품인, 뉴욕의 랜드마크 같은 명소다. 이 미술관은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1867~1959)가 뉴욕에 남긴 유일한 건축이다. 관람객들은 달팽이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선의 전시장을 내려오며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이 독특한 미술관은 컬렉터 페기 구겐하임(1898~1979)의 소장작으로 이루어진 미술관으로 마네, 모네, 피카소, 드가, 몬드리안, 칸딘스키 등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화가들의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페기 구겐하임은 철강왕이던 아버지 벤저민 구겐하임이 1912년의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 가족 간의 불화로

외롭게 성장한 페기는 결혼에 거듭 실패하고 약물에 중독되는 등 우울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독을 미술품 수집으로 잊으려 했다. 소장작의 규모가 커지자 페기의 삼촌인 솔로몬 R. 구겐하임이 재단을 설립했고, 이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미술관 건물 건축을 의뢰함으로써 오늘날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문을 열게 되었다. 모든 전시장이 하나로 연결된 파격적인 설계는 시작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이 미술관의 구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뉴욕의 중요한 명소이며, 이 미술관이 소장한 컬렉션의 수준에 대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다.



05 화가의 가족 초상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1896년, 캔버스에 유채, 173x137cm,
반스 파운데이션, 필라델피아

06 금붕어가 있는 스튜디오

앙리 마티스, 1912년,

캔버스에 유채, 118×101.5 cm,

반스 파운데이션, 필라델피아



르누아르 작품의 놀라운 보고, 반스 파운데이션

프릭 컬렉션과 구겐하임 미술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름이지만 필라델피아의 반스 파운데이션은 미국 동부의 숨겨진 보석 같은 미술관이다. 필라델피아 출신 컬렉터인 앨버트 반스(1872~1951)의 소장작으로 구성된 이 미술관에 들어서면 정문 위에 설치된 마티스의 대형 벽화 ‘춤’이 방문객을 맞아준다. 앨버트 반스는 의약품 생산으로 큰 부를 일군 의사 겸 사업가였다. 20세기 초부터 미술품 수집을 시작한 반스는 당대의 화가들 중에서도 르누아르, 마티스, 세잔 이 세 사람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사 모았다. 때문에 르누아르의 작품 애호가라면 반스 파운데이션은 꼭 방문해야 할 미술관이다. 반스는 1922년 필라델피아 인근 소도시 메리언에 반스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미술관 건물을 위해

반스는 마티스를 초청했고, “그 어떤 주제를 그려도 좋다”는 조건으로 현관을 장식할 벽화를 의뢰했다. 마티스는 3년의 작업 끝에 세 개의 반원형으로 이루어진 대형 벽화 ‘춤’을 완성했다. 필라델피아의 학생들, 빈민들을 위한 예술 교육에도 힘을 쏟았던 반스는 1951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자녀가 없었던 그의 컬렉션이 운영 위기에 처하자 반스에게 후원받으며 공부했던 학생들이 나서서 미술관을 지켜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원래 메리언에 있었던 반스 파운데이션 건물은 2012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져야만 했다(반스는 메리언 건물에서 절대 자신의 컬렉션을 이동시키지 말라고 유언했다). 벽화 작업을 통해 반스의 열정과 의지를 알게 된 마티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반스 파운데이션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예산 편성과 기획

위성백 前 기획재정부 국장,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특임교수



1. 예산과 기획의 만남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하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감회가 새롭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예산 앞에 붙은 ‘기획’이란 글자다. 1998년 잠시 예산편성 기능만 담당하던 ‘예산청’ 시절도 있었지만, 예산의 기획 기능이 강조되며 ‘기획’ 글자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기획예산위원회와 통합되면서 기획예산처로 바뀌었다. 기획 기능을 전담하는 재정기획국도 생겼다. 예산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기획 마인드를 가져야 하지만 예산 편성 시즌이 되면 너무 바빠 기획을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므로 기획국과 예산실을 순환보직으로 근무하게 하여 예산 편성 경력과 기획 마인드를 함께 기르도록 한 것이다. 5개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제도도 만들어졌다. 한 해의

단기적인 시각에서가 아니라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기획 마인드를 잊고 일하기가 쉽다. 편성해야 할 예산의 종류는 많고 여름까지 일을 끝내야 해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예산을 완성하는 데 급급하고, 사전에 기획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따르기가 어려운 것이다.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예산총괄과는 그 해 가용한 예산 총액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한다.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총괄과에는 주어진 총액 내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그래서 정책 방향 반영은 심의과정에서 총괄과는 재원의 가용성을 집중적으로 챙기게 되는데, 심의를 맡은 심의관들은 자원 여건의 키를 가지고 있는



총괄부서에 결정권이 밀리기 쉽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기한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받아야 하는 직원들은 더욱더 기획이나 정책을 생각하기 어렵다. 재정 소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것인가가 우선이고 그 과제가 국가 정책적으로 얼마큼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그다음이다. 예산을 늘리고 싶으면 그해 정책 방향에 맞는 제목과 내용으로 설명자료를 만드는데 이것은 정책 방향에 따라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직원 중에는 예산실이 계산실이라고 푸념하기도 한다. 담당자의 재량이 충분하지 못하고 정치권 등 외부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사업별로 재원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 충분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

2. 예산 편성을 위한 기획의 중요성

예산은 단순한 지출 항목의 합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추구하는 비전과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담아낸 전략적 청사진이다. 그러나 예산이 ‘계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별 요구를 취합·조정하고 총액을 맞추는 데 급급하다 보니, 장기적 전략이나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예산을 기획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해한다. 첫째, 정책 목표와 재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예산은 국정과제가 실행되는 마지막 관문이며, 목표와 자원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2005년 도입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기적 편성의 단절성을 완화하고, 복지 지출 확대·R&D 강화와 같은 국가 전략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단순 계산식 접근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불가능하다.

둘째, 기획은 재정 우선순위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계산 중심 접근은 요구를 기계적으로 합산하고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방식에 머무른다. 반면 기획 중심 접근은 정책 효과성, 사회적 파급력, 미래 대비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 R&D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획 평가를 강화하면서 기초과학·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셋째, 기획은 성과 관리와 환류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계산식 편성은 편성 절차의 완성이라는 절차에 치중해 학습 효과가 미약하다. 반면 기획 중심 편성은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학습하는 재정’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기획은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국회 심의, 전문가 공청회 등은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과 정보가 마련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계산 중심 접근은 국민에게 결과만 전달하지만, 기획적 접근은 과정에서부터 참여와 논의를 보장해 정책 신뢰성을 높인다. 예산을 계산으로 다루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만, 기획으로 다루면 정책의 실현과 미래 준비라는 본질적 기능을 발휘한다. 예산 편성은 ‘계산’이 아니라 ‘기획’으로 가야 한다. 예산 당국은 물론 기획을 통해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지만 뜻을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어 항상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다.

기획을 통한 예산 편성은 예산 전체 구조에서의 자원 배분은 물론 개별 사업 단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이 부족하면 사후에 더 큰 비용을 치르거나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며 장기 방향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3. 사업 단위에서의 기획과 편성의 공존

필자는 예산 편성 업무 담당 초기부터 기획이 중요하다는 말을 항상 들어 왔기 때문에 기획 방향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던 경험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주변 환경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으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 필자는 1996년 농림수산업예산과에서 처음으로 예산실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해 커다란 농업 재해로 농민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재해예방 관련 감사를 시행하면서 예산실에도 감사가 시행되었다. 당시 재해예방 예산들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담당자는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확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외부의 이런 자극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는 외부의 자극은 사전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신중하게 재난 대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부의 요구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정기획국의 산업예산과장으로 전국의 SOC 예산 편성 방향 등을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때이다. 당시 ‘국민의 정부’로 바뀌어 복지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이를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 SOC 분야는 오랜 기간 동안 예산의 집중지원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완급 조절과 민자 활용을 통해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여기서 절약되는 재원으로 복지 등 시급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었는데, 업계에서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SOC를 계속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를 하면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집중 지원 덕분에 전국에 상당한 수준의 SOC가 확보되고 있었고 도로, 철도 등이 매우 고급화 설계되고 있었던 것이다.

외부 자극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다. 2007년에 국토부 예산을 담당하면서 전국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속에서 SOC 예산을 편성하였다. 당시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였다. 먼저 전국의 도별로 낙후 지역을 조사해 보았다. 강원 남부, 경기 접경지역, 충남 서부, 충북 동남부, 전남·북 남서해안, 경남 서부, 경북 북부 등 권역별 낙후 지역을 선정하고 예산제약하에서 이 지역들의 SOC에 집중 지원하였다.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 진행 중인 SOC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교통량이 많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예산을 적게 배분하고 교통량이 없어 SOC 수요가 작은 지역들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했느냐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만 SOC를 계속 건설해야 한다. 도로가 뚫리면 생활이 편리해져 사람들이 모이고 다시 새로운 도로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이 지역에 또 도로를 놓아야 한다. 도로가 없는 지역에는 불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도 도로 수요가 없다. 이렇게 수요가 없는 지역에는 SOC를 건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SOC 시설은 빈익빈 부익부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SOC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된 기획이 중요하다.

정책 판단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산 제약이 있는 예산당국과 사업부서 간에는 의견 대립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임대주택을 짓는데 당시 주택공사에서는 20~30평형대를 주축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주택으로 계획되었다. 나는 국민임대주택이 시급하다면 10평형대로 기본 시설 위주로 보다 많은 주택을 짓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국토부와 주택공사에는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주거환경에서 살도록 해야 하고 20년 후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에 맞는 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주택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임대주택들이 소형으로 기본 시설만 갖추고 공사비를 줄였다면 임대주택이 기피 시설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인천공항도 감회가 새롭다. 내가 SOC 예산 편성 업무를 맨 처음 담당한 2001년 인천공항 2단계 확

장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었다. 2단계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보는 사업비는 5조 원을 넘는 규모였다. 외국 공항과의 총사업비, 시설을 조사하여 비교해 본 결과 인천공항 2단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이고 가장 큰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었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우리 국력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미래 세대에 세계 제일의 국제공항을 물려주자고 주장하였고, 과에서는 약간의 조정만 하고 그 의견을 수용하였다. 20년이 지난 지금 인천공항에 가 보면 세계 제일의 최첨단 공항으로 지어진 시설들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예산 편성자들은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우선 몸에 배어 있다. 그 마인드로만 국가 예산을 편성해 나가면 국가의 진정한 발전은 어려울 수도 있다. 기획과 예산편성은 관계자들의 참여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례들이다.



4. 기획을 통한 예산 편성 제도의 발전 제언

한국의 예산제도는 제도적 발전을 거듭해 왔고 기획을 강조하여 왔으나, 여전히 계산이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총액 균형과 재원 여건에 집중하면서 장기 전략, 정책 성과, 사회적 합의 구호는 내세우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이제는 예산을 기획의 비중을 더 높이며 운영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편성 시에는 관심받지 못하기 쉽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도외시되면서 계획 수립 업무가 한직화되는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중요성이 강화되면 계획과 예산 편성이 연계될 수 있다. 재난 예방 예산이 사전 기획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묶였던 경험은,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둘째, 성과 기반 예산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획을 기반으로 그 기획은 잘 짜인 것인지, 예산이 기획대로 편성되었는지 집행이 기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정책 성과를 정량·정성 지표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예산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재정 평가기구를 강화하고, 기획-예산-성과 연계가 제도적으로 실질화되어야 한다.

셋째, 참여적 예산 편성의 확대다. 이해관계자가 예산 편성에 너무 관여하면 국가 전체 관점에서 균형이 상실된다는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 전문가·시민이 사전 기획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면 예산의 투명성과 수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참여적 예산 편성은 예산에 대한 기획이 범부처의 참여가 있어야 함도 포함한다.

예산당국의 우위가 작용해서도 안 되고 사업부처의 이해관계가 우선해도 안 되며, 대통령실 등 조정부서를 포함하여 범부처적으로 방향성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감사원 등 외부의 지적은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범부처적으로 마련된 기획대로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수행되게 될 것이다.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SOC 배분에서 감사원과 의견이 대립했던 경험은 사전 합의가 부족하여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시사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의 적극적 관심과 유도다. 각 부처는 본래 이해관계와 단기성과에 매몰되기 쉽다. 예산 당국은 계산을 맞추고 한 해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는 데 만족할 수가 있다.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국회에 기획을 반영한 예산 심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큰 틀에서 예산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국가정책은 반영되었다고 보고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지역사업과 민원 반영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 전략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실이 직접 중기재정계획과 편성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기획 중심 편성을 유도한다면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대통령실의 관심은 예산의 기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인 것이다.

전략적 기획은 제도의 변화를 이끌고 성과를 만들어낸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예산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이고 성과 관리 제도가 예산 효율성을 높이므로, 대통령실의 관심하에 예산 당국의 기획마인드가 강화될 때 한국의 재정제도는 계산 중심을 넘어 기획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 계산에서 기획으로, 숫자 중심에서 정책 비중의 확대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K-컬처 산업의 오늘과 내일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부교수

K-컬처의 확산이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쓰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K-콘텐츠와 K-컬처는 과거의 ‘한류’와는 궤를 달리하며 일부의 열광을 넘어 보편적인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이러한 흐름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K-컬처는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까?

K-컬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현재 K-컬처 산업은 단언컨대, 전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K-팝은 이제 한국 대중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영화와 드라마는 세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을 휩쓸었다. K-팝 자체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요소로 활용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해외 기업이 한국계 창작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새로운 ‘현상’이었다. 이처럼 강력한 콘텐츠의 성공은 한국 문화 자체에 강력한 ‘상품성’을 부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콘텐츠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K-컬처의 확산은 다양한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콘텐츠의 배경이 된 장소를 찾아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고, 콘텐츠에 등장한 음식을 맛보는 ‘K-푸드’ 열풍이 분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들이 품절 사태를 빚으며 ‘오픈런’을 유발하는 현상은, 이제 한국의 생활 및 전통문화 전반이 매력적인 소비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이제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일상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K-컬처의 소비 저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초기의 한류가 일부 팬덤 중심으로 소비되며 때로는 ‘코리아부(Korea-boo)’라는 조롱 섞인 시선에 부딪혔던 것과 달리, 지금의 K-컬처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폭넓은 대중에게 스며들고 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Golden)’을 떼창으로 부르며 한국어를 흥얼거리는 모습은 K-컬처를 즐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K-컬처의 확산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며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되는 대목이다.

과거 한류 현상이 문화적 근접성이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성공은 미국, 유럽, 중동, 남미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모든 한국 문화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K-컬처가 언제나 우려와 냉소를 넘어 꾸준히 한 걸음씩 영토를 넓혀왔다는 점이다. 더 많은 국가의, 더 다양한 세대가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자기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회와 위기, 양날의 검

모든 급격한 성장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기회와 함께 위기 요인 또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글로벌 자본이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활용해 직접 콘텐츠를 상품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한국이 만든 작품은 아니다. 한국의 이야기와 정서를 담은 콘텐츠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제작되는 것은 K-콘텐츠의 위상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K-콘텐츠 고유의 경쟁력이었던 ‘해자(moat)’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K-컬처의 확장이 가져오는 이익의 수혜자가 더 이상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차용한 콘텐츠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애플TV플러스는 ‘케이팝드(Kpopped)’라는 예능을 만들었다. 유사한 기획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한국 문화가 활용되고 일부 한국 인력이 참여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일부 한국 문화를 떼어다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기획이다. 과거보다 높은 문화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은 맞지만, 차칫 이국적인 특이한 문화로 단기적으로 소비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와 깊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피상적인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K-컬처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위기보다 기회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한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문화적 친밀감’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확보했다. 하나의 문화가 제한된 집단의 취향 소비를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소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더 크게 확장된 시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장소들을 성지순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파고드는 전 세계 사람들의 ‘경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자원이 되어 이후 K-컬처의 또 다른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물리력을 통해 자국 문화를 이식했던 것과 달리, 머나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자발적인 매력을 통해 이 정도의 문화적 영향력을 획득한 것은 놀라운 성과다. 이렇게 얻은 친밀감은 향후 소비재, 기술,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반이 될 것이다.

산업의 관점에서 본 미래

K-컬처 산업 확장의 근간에 K-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핵심 대상이 북유럽의 자연이었고, ‘쿵푸팬더’가 중국의 팬더와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삼았다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이라는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근간으로 삼는다. 이는 K-컬처의 지속가능성이 결국 K-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현재 K-콘텐츠 산업이 거대한 전환기적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기회 이면에는,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시장 재편, 제작비 급등, 내수 시장 위축이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일찍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일부 분야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영화, 방송, 게임 등 다수의 내수 기반 산업은 해외 시장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위축되는 국내 시장의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인 점은, 많은 기업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K-콘텐츠 산업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였다. 1990년대 문화 시장 개방과 2000년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충격에



대응하며 쌓아 올린 역량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다. 막대한 낙관이나 비관을 넘어, K-컬처 확산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산업체질 개선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K-컬처의 높아진 위상은 K-콘텐츠의 성공이 더 큰 산업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K-컬처의 외연 확장과 K-콘텐츠의 내실 강화가 선순환을 이루는 전략이 필수다.

첫째, K-콘텐츠 산업의 기초 체력을 단단히 해야 한다. 창의적인 인재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결과물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IP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여 콘텐츠

하나가 다양한 산업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K-컬처 경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을 갖고 한국을 찾거나 한국 제품을 구매한 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관광 인프라, 소비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콘텐츠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이미지가 실제 경험으로 이어질 때 배신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과 상품의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K-컬처의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K-콘텐츠가 더 다채로운 한국의 문화를 담아내 세계를 매혹하고, 그 성과가 다시 더 폭넓은 K-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할 K-컬처의 다음 장이 될 것이다.

모더니즘의 도시

브라질리아의 상징과 새로운 과제

글·석자은 문화도시 조성, 유희공간 문화재생 전략 선임 연구원



새 정부 출범 후 첫 이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시 이전이었다. 이전에도 행정수도 세종시 개발과 혁신 도시 설치 등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이와 같은 시도는 논의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로 500년, 조선시대-대한민국에 이르는 600년의 역사에서 수도는 계속 서울이었다. 긴 시간 동안 천도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로 행해진 적은 없었으며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이고 시대적인 과제인 기능 분화만으로도 많은 논쟁과 갈등이 존재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국가에서 수도 이전은 흔치 않다. 국가 경영의 허브를 계획하는 것은 한 국가의 위상과 비전, 역사와 미래, 기능과 상징을 모두 담아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가깝다. 이미 도시로 가득한 완성된 형태의 현대 국가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만큼 수도는 국가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가 깃든 복합적 상징체라 볼 수 있다.



브라질리아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국회의사당

세 번째 수도의 탄생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1950년대에 단 5년 안에 해낸 국가가 있다. 축구와 카니발, 삼바로 유명한 브라질 그리고 수도 브라질리아가 그곳이다. 브라질리아는 사우바도르 다 바이아, 리우데자네이루에 이어 브라질의 세 번째 수도다. 약칭 사우바도르는 포르투갈이 남미를 지배하기 위해 세운 수도로

1549년부터 1763년까지 200년 이상 유지되었다. 신대륙 최초의 노예시장, 항구, 상업과 행정 주거의 기능을 갖춘 전형적인 식민 도시이며 르네상스 도시 계획을 반영한 도시였다. 1763년 수도가 된 리우데자네이루는 오늘날까지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이며, 코르코바두산 정상에 있는 예수상과 코파카바나 해변 등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와 함께 도시계획으로 발전한 지역이었다.



브라질 건축가 오스카에이마엘이 설계한 왕관 모양의 브라질리아 대성당

반면 역사와 인지도, 도시 구조상 완성도가 높은 앞선 두 개의 수도와 달리 브라질리아는 계획도시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단지 브라질 내륙에 위치한 광활한 고원지대로 과거 농업이 발달한 곳이었다.¹⁾ 이처럼 신(新)수도 브라질리아는 과거가 없는 도시지만, 브라질리아의 수도 이전 논의 자체는 오랜 역사를 가진다. 먼저, 브라질리아라는 이름은 1822년 브라질 독립 직후에 제출된 1827년 신도시 건설법안에 등장한다. 여기에 1891년 개정된 공화국 헌법 3조에 현재 브라질리아가 들어선 고이아스주의

고원지대를 연방 직할로 지정할 정도로 구상은 구체적으로 진행됐다.²⁾ 비용 조달, 이미 조성된 경제 인프라 이동의 현실적인 어려움, 기득권층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었던 수도 건설을 강행한 것은 1956년 취임한 주셀리누 쿠비체크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5년 내 50년의 진보’라는 강력한 전략을 토대로 불과 4년 만인 1960년, 브라질의 수도를 완성했고, 주요 입법·사법·행정기관을 옮기면서 행정 수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그러한 브라질리아의 건설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진모, 박열. (2016). 1950년대 근대계획도시의 도시 형태 및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KIEAE Journal, 16(4), 55-62.

2) 정한보. (2020, 10월 5일). 민중의 도시 표방했던 브라질리아, 투기 잡지 못해 부자의 도시로 경향신문

1. 브라질리아 건설 이전까지 1762년 이래 브라질의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를 비롯하여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의 지배를 상징하는 모든 잔재와 상징을 제거하고자 했다.³⁾ 수도 이전은 라틴 아메리카 전반에 깔린 낙후와 저개발이라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찾는 정치, 경제, 문화적 전환점으로서 국가 단위 프로젝트였다. 즉, 브라질리아는 브라질 국민에게 브라질에 새로운 질서와 변명을 알리는 출발점이자 국가의 장래를 상징하는 이데올로기적 기호였다.
2. 이러한 맥락은 내륙 개발 정책과도 연관된다. 브라질의 대표 도시는 해안가 중심으로 발달하였고, 중부와 서부 지역은 사실상 방치 상태로 남아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한 상태였으며, 국가 발전도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소비 시장을 창출하고 국가적으로 경제·사회·기술적인 혁신을 도모하여 낙후된 중부와 서부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성장의 중심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⁴⁾ 수도 이전에 따른 도로 건설은 결과적으로 중서부 지역에서 수출용 대두 경작 확대로 이어지면서 내륙 개발에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3. 국가의 통치 전략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당시 브라질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으며 중·소·대 도시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어 연방 차원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내륙지방과 해안 도시 모두 효율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과 거점이 필요했다. 국가 통합은 균형적 발전의 마중물이었다.
4. 이 외에도 국방 관점에서 해안 도시는 외국 침략에 취약하기 때문에 내륙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브라질리아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쿠비체크의 지휘 아래, 루시오 코스타가 도시 설계를 하고, 오스카 니에마이어가 주요한 건축물을 설계하였으며, 벌 막스가 공원과 조경 설계를 담당했다. 이들 네 사람이 브라질리아 건설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강력한 추진력이 오늘날 브라질리아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⁵⁾

모더니즘이 현현한 인공 도시

1957년 루시오 코스타가 그린 비행기 모형의 도시 설계 작품이 공모에 당선되면서 브라질리아는 이를 기반으로 건설되었다. 비행기의 양쪽 날개인 북쪽과 남쪽에는 주거 단지를 배치하고, 몸통부는 금융·호텔·오피스 등 상업 지구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설치했다. 남쪽 날개 끝에는 브라질리아 국제공항이 있으며, 공항에서 이동 시에는 중앙고속화도로를 이용한다. 또한 공원 속의 도시를 지향하였기에

3) 박원복. (2004).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의 문화·기호학적 상징성. 이베로아메리카, 6, 63-85.

4) 박원복. (2004).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의 문화·기호학적 상징성. 이베로아메리카, 6, 63-85.

5) 김명수. (2006). 모더니즘에 입각한 계획도시, 브라질리아(Brasilia). 국토. 122-127.



넓이 40km나 되는 큰 인공호수 파라노아를 건설하고 호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에는 고급 주택단지를 배치했다.⁶⁾ 조종석 위치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의회, 연방대법원 등이 삼각형을 이루도록 배치하며, 주변 건축물의 높이는 대통령궁을 기준으로 했다. 중앙 행정 기관이 자리한 삼권 문화광장에는 연방정부 청사-주정부 청사를 배치했다.

주거단지는 최초 50만 명 수용을 계획해 2겹의 슈퍼블록으로 남북축을 따라 선형으로 연결되는 형태였으나 인구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최대 4겹의 주거단지가 연결된 형태가 되었다. 주거단지의 건축물은 중앙축 주변 6층을 기준으로 외곽으로 가면서 4층, 2층으로 낮아진다. 6층이 기준 층고가 된 이유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부르면 들을 수 있는 높이의 한계가 6층이라고 루시오 코스타가 생각했기 때문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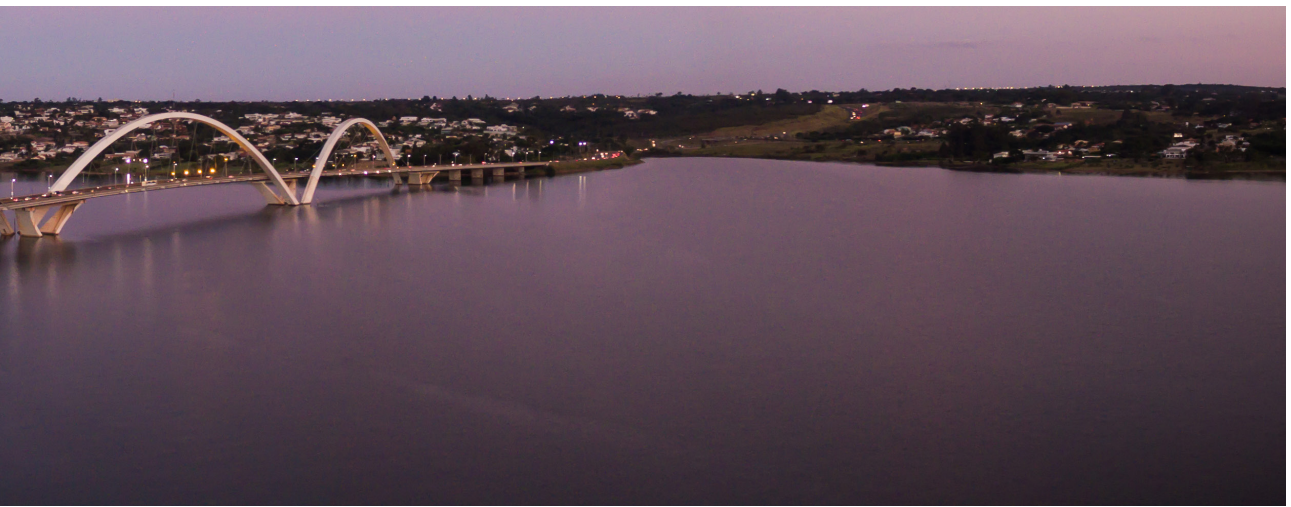
브라질리아는 100% 계획도시로 사람을 위한 도시라기보다는 모더니즘 사상, 즉 근대적인 합리주의와 효율성, 기능 위주의 사상을 구현한 도시라고

보아야 한다. 루시오 코스타는 도시의 주요 교통수단을 자동차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동차 중심의 입체 교차를 원칙으로 했으며, 대중교통과 도보로는 지역 내 이동이 불편하고, 상업지구에서조차 보행 건널목이 없는 구획도 있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의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계획도시인 브라질리아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 사람은 거주하지만 행인은 없고, 길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브라질리아는 계급을 초월한 민중의 도시를 지향했고, 그 중심으로 삼권 문화광장을 설정했지만 실제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쇼핑몰이며, 일요일에는 대성당에서 모인다.

사람이 없는 도시는 이질감을 불러일으킨다. 접시모양의 국회의사당, 피라미드 형태의 국립극장, 천막과 같은 대성당 등 역사·문화적 배경을 짐작할 수 없는 독특한 건축물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도시 경관은 작품으로서의 경외감이 들지만, 도시로서는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6) 편무원. (2014년 5월 24일). 초현실적 건물, 외계행성 온 듯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 주간조선

7) 김명수. (2006). 모더니즘에 입각한 계획도시, 브라질리아(Brasilia). 국토. 122-127.



주스셀리노 쿠비체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주스셀리노 쿠비츠섹 다리

식민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민족의 열망

아이러니하지만 브라질리아는 가장 브라질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결과물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브라질리아의 탄생 배경은 식민 잔재에서 벗어나 브라질의 국가적·민족적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엘리트의 정치적 과제와 민중의 열망 중 하나였다. 브라질리아 건설 전후로 브라질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계급, 인종이 몰려왔다. 비록 실행 과정과 결과에서 계층 간 이해충돌, 불평등 심화 등이 존재하지만, 브라질리아가 지향했던 국민 통합은 유효했다. 코스타의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대주의 도시는 무질서하고 낙후된 국가라

“브라질리아의 건설은 르네상스 시대식으로 개인 또는 정치적인 어떤 소일거리에서 나온 제스처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염두에 둔 거대한 집단의 공동 노력의 집대성이다.”
(코스타, 1968년)⁸⁾

는 이미지를 넘어서기 위한 강력한 이정표이자 미래 국가에 대한 상상과 열망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브라질의 민족적 정체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리아가 브라질의 국가적·민족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큰 일조를 한 것은 유효하다. 일례로 브라질리아 건설이 논의되면서 문화운동이 폭발적으로 분화하기 시작했다. 대중 문화와 민족문화가 대립했으며,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브라질 정체성 탐구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다. 이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자국 문화에 대한 긍지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주의 예술 운동, 신 영화 운동, 보사노바 음악의 탄생과 이를 탈피하기 위한 열대문화운동까지 각종 문화·예술 운동이 브라질리아가 건설된 1960년을 전후해 촉발했다.

8) 박원복, (2004).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의 문화·기호학적 상징성. 이베로아메리카, 6, 63-85.



벌 막스 가든 파크의 분수

다음 시대 도시로 전환 과제

브라질리아는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i)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과 등재기준 ‘(iv)인류 역사에서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을 충족해 근대 도시로서는 최초로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유네스코는 “브라질리아는 1956년 브라질 중앙부에 무(無)에서 창조된 수도로, 도시계획사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이정표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루시오 코스타와 건축가 오스카 니에마이아는 주거 및 행정 지구의 배치(pilot plan)부터 건축물의 대칭적 구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도시의 총체적 설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하였다. 공공기관 건축물은 혁신성과 창의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근대 도시로서 세계유산 등록은 상당히 유의미하고 가치있는 일이지만, 가치 보존이 우선되면서 정주 도시의 역할과 충돌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브라질리아에 영향을 끼치는 위협 요소로 지역 인구의 증가와 지역 사회의 변화, 주택 공급과 관광/방문객/여가의 영향을 꼽았다. 인간이 살아 숨 쉬는 곳에는 변화가 생기며, 문화가 형성되고 이것이 도시 정체성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도시는 완벽히 통제될 수 없으며, 인간이 사라지면 도시는 가치를 상실한다. 브라질리아는 합리와 이성의 이상 도시라는 가치를 넘어서 다시 한번 미래도시로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브라질리아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계급차와 문제는 오히려 심화해졌다. 관료의 도시가 된 브라질리아는 도시 거주민의 소득이 국민 소득보다 월등하게 높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서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었다.



브라질리아 남쪽 날개 쪽 주거 단지

2020년 기준, 브라질리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5%가 위성도시 등 외곽에서 출퇴근하면서 도로 체계망은 무너졌고, 외곽부 개발 압력이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빠른 추진으로 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 되었지만, 외채를 무리하게 사용하면서 브라질 경제가 위험에 빠졌다는 결과를 안았다.

‘이상 도시’는 무엇인가. 도시는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며 시작하지만, 현실이 되는 순간 상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통치의 효율성, 자연재해의 대비, 자원의 활용 등 계획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문은 있다. 하지만 계획은 인간의 욕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완벽함과 경쟁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도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며, 그 기간동안

다양한 욕망과 이해관계가 갈등하다 타협하며 공생한다. ‘브라질리아는 실패한 도시인가’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도시는 인간을 위한 것임을 전제하고, 다음 시대를 위한 논의와 변화에 직면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브라질리아 Brasilia



수도 변천:

1549년~1763년
사우바도르 &
1763년~1960년
리우데자네이루

독립 직후

1827년 신도시 건설법안 &
1891년 신도시 건설법안에
브라질리아 등장

-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내륙 개발 정책으로
중부와 서부 지역 발전
- 1960년 브라질리아 완성 및
입법·사법·행정기관 이전 &
행정 수도 출발
- 비행기 모형의 도시 설계에 따라
100% 계획도시로 건설
- 1957년 루시오 코스타 설계 당선,
브라질리아 건설 시작
- 1956년 쿠비체크 대통령 포르투갈
지배를 상징하는 잔재와 상징 제거 &
브라질만의 정체성을 찾는 정치,
경제, 문화적 전환점으로서
국가 단위 프로젝트 계획



서울 남산공원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 동상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일부이다

다산 정약용

서울 남산공원 여섯 위인 연재

네번째 이야기

글·유진솔 재정정보분석센터 청년인턴

* 서울 남산공원의 여섯위인 섹션은
청년인턴과 함께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이 말은 관료의 덕목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이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를 함축하는 말이다. 이와 함께 민본(民本) 의식 실천을 강조한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 점을 인정받아 탄생 250주년인 2012년에 한국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었다. 정약용은 경세치용(經世致用)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사상을 바탕으로 청렴한 관직 생활과 당시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762년 남인 가문에서 태어난 정약용은 어려서부터 성호 이익의 사상을 접하였고 28세에 벼슬길에 올라 초계문신에 발탁되었다. 그는 정조의 계획에 따라 한강 배다리를 기술적으로 설계하였고 거중기를 고안하여 수원성 건축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약 10년간 암행어사를 포함하여 관직에 있다가 천주교 관련 혐의로 1801년 신유박해 때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6경과 4서를 연구하며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를 비롯한 5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그는 정치사상으로는 왕도정치를, 토지개혁론으로는 여전론(閭田論)과 정전론(井田論)을 주장하였다. 이 중 여전론에 따르면 토지는 촌락 단위 공동소유 및 공동경작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분배된다. 정전론은 토지의 국유화 및 재분배와 함께 병농일치(兵農一致)로 군대를 조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한편, 목민심서는 수령이 ‘청렴한 마음’으로 검소한 생활을 지키고 뇌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고 기록하였고 애민(愛民)의 도리 또한 강조한다. 이처럼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경전 연구와 실학사상에 기반하여 다양한 개혁안을 내어놓았다. 1818년 그는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은거하며 연구와 저술을 이어갔고, 당시 학자들과 학문교류를 하며 지내다가 1836년 75세에 생을 마감했다.

유네스코는 공익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한 바를 들어 전 세계가 기념하는 인물로 정약용 선생을 선택하였다. 그의 정직과 봉사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청렴과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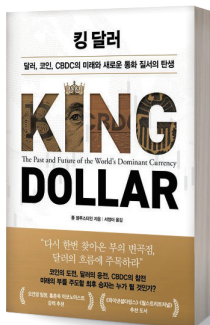
▲ 전남 강진 정약용 유배지

정약용 선생이 유배된 곳으로 11년간 머물며 많은 저서를 남겼다.

◀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에 돌아온 다산 정약용 영정

천연두로 오른쪽 눈썹 위 흉터가 남아 '삼미자(三眉子)'로 불렸다.

새로운 통화와 돈의 미래



「킹 달러」

폴 블루스타인 지음 | 인플루엔셜

이 책은?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반복되는 달러 패권의 사이클에 대한 인사이트

통화의 춘추전국시대인 현재의 세계 경제. 곳곳에서 탈달러화 움직임 또한 본격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달러는 중요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결국 달러가 화폐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되리라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와 정세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선으로 달러의 패권을 지탱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해 그 사이클을 밝혀낸다. 특히 달러가 다른 통화보다 월등한 유동성과 보편성을 갖추게 된 이유로 '청산은행간결제시스템(CHIPS)'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제시하며 현대 국제통화 시스템을 이해하는 넓은 시야와 경쟁력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달러의 패권이 반복되는 사이클

1. 탈달러화 시도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전 세계 외화보유고 60%, 국제무역 대금의 80% 차지하는 달러의 유동성을 대체하기란 불가능하다.

2. 미국은 어째서 코인에 더 힘을 쏟을까?

테이블코인 법제화는 달러 대체가 아닌 달러와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를 만들어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3. 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유는?

환율은 경제정책이 아닌 통화 발행국의 힘과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실물 화폐가 세계 경제를 이끌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통화가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들었다.
그렇다면 다음 시대, 돈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스테이블코인의 시대」

이선민 지음 | 잇담북스

이 책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한 미국
디지털 통화 시대에 대한 전망

더 이상 비트코인만의 시대가 아니다.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금, 미국은 전략적 국가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과 규제 완화를 병행하며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인플레이션으로 흔들리는 신흥국에서는 화폐 대체 수단으로, 선진국 금융권에서는 결제, 송금, 자산관리의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금융을 재구성하고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바꿀 것인지, 스테이블코인의 현재를 통해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의 미래에 대해 전망한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디지털 자산의 시대 유의점

- 디지털 자산 시대의 도래를 단순 유행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인식해야 한다.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뿐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산업과 결합해 확산하는지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규제 환경과 제도 변화는 곧 투자 기회와 리스크로 직결되므로 각국의 법안 동향을 민감하게 체크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할수록 소액 결제와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기업과 기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IS

고객상담센터

dBrain+

고객센터 1811-8822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한국재정정보원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시스템 (dBrain+, e나라도움) 사용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 하기 위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



재정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행, 국가재정정보를 연계·분석 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

(2024년 기준)

콜 상담 ▶ •연간 총 31.9만 건

게시판 상담 ▶ •3.0만 건

채팅 상담 ▶ •1.8만 건

챗봇 상담 ▶ •11.7만 건

문자 안내 ▶ •약 9천 건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국고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 으로 관리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2024년 기준)

콜 상담 ▶ •연간 총 69.4만 건

게시판 상담 ▶ •2.9만 건

채팅 상담 ▶ •3.2천 건

챗봇 상담 ▶ •3.8만 건(24년 12월 서비스 시작)

문자 안내 ▶ •약 3만 건

☑ 사용자 문의 응대

- 시스템별 사용자 문의에 대해 전화, 챗봇, 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신속·정확한 상담

☑ 상담 운영 일원화

- 2개 시스템(dBrain+, e나라도움) 상담센터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집중기 탄력적인 응대

☑ 신기술 도입을 통한 고객응대 강화

- AI보이스봇 등 신기술을 반영한 상담시스템 구축으로 상담의 효율성 및 신속성 개선

신기술 도입

① 상담 업무효율성 증진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상담시스템 개선
- 정확한 상담을 위한 지식관리 체계화
- 방대한 업무의 업무지원 솔루션 마련

② 고객 편의성 증진

- 인입채널 확대를 통한 고객 접근성 확보
-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상담체계 확보
- 좀 더 빠른 안내로 신속한 문제해결

③ 서비스 품질 혁신

- 콜 모니터링 시각화로 정확한 품질관리
- 대외민원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방안 적용
- 체계적인 통계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Insight 도출

E

← [효율성 중심] 업무효율성 증진을 통한 생산성 확대

옴니채널 AP (멀티상담화면) 신규 도입

- 다양한 솔루션을 한 화면에서 구동 및 상담 처리를 할 수 있는 콜 상담 시스템 도입
- ##### 지능형 KMS 신규 도입
- 고객의 질문 및 상담내용을 자동 분석하여 상담 지식 자동 추천으로 신속한 상담 처리
 - 검색 엔진을 통하여 KMS 內 상담지식 자동검색으로 오상담 최소화

S

← [고객 중심] 자동화를 통한 상담채널 확대 및 24시간 응대 운영

AI보이스봇 신규 도입

- 각 업무별(e나라도움, dBrain+) 질문에 대한 상담 자동화 운영 (365일 24시간 응대)
- ##### 챗봇 기능강화
- 기존 시나리오 챗봇에서 NLU기반의 기능이 향상된 챗봇 제공 (채팅과 연계하여 상담이력 원활화)

G

← [품질혁신 중심] 실시간 상담 분석자동화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

STT (음성 텍스트 변환, Speech to Text) 신규 도입

- 상담 요약 자동화 및 상담유형 자동분류로 상담처리 시간 단축 / 체계적인 상담 이력 관리

TA (텍스트 분석, Text Analysis) 신규 도입

- 실시간 콜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상담 품질 모니터링
- 민감 키워드(대외 민원성 단어)에 대한 실시간 알림으로 즉각적인 대외민원 대응

☑ 기대효과

- 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 고객의 상담 접근성 및 품질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FIS NEWS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보조금·새출발기금 수혜자 확대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9월 11일 한국재정정보원 본사(서울 중구)에서 보조금사업과 새출발기금사업의 상호 홍보를 통해 사용자 저변을 확대하고, 국민이 수혜자인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민 공공사업 홍보를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AI·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국가자산 관리 역량 제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 교류, 글로벌 사업의 공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재정원 윤석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공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재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과 ‘대국민 공공사업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한국연구재단과 9월 17일 한국재정정보원 본사에서 대국민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및 보조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민 공공사업 홍보 및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기관 간 사회공헌활동 공동 추진, 시설물·물적자원 공유, 성과확산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등 폭넓은 범위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 발전과 더불어, 공공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보조금 사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uiz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정보시스템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기교육과 지역기관과 업무협업을 위해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 ① FIS 사용자 교육 ② FIS 재정도움센터
 - ③ FIS 사이버 보안관제 ④ FIS 고객상담센터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블로그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힌트



52

좌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5.10.27.~1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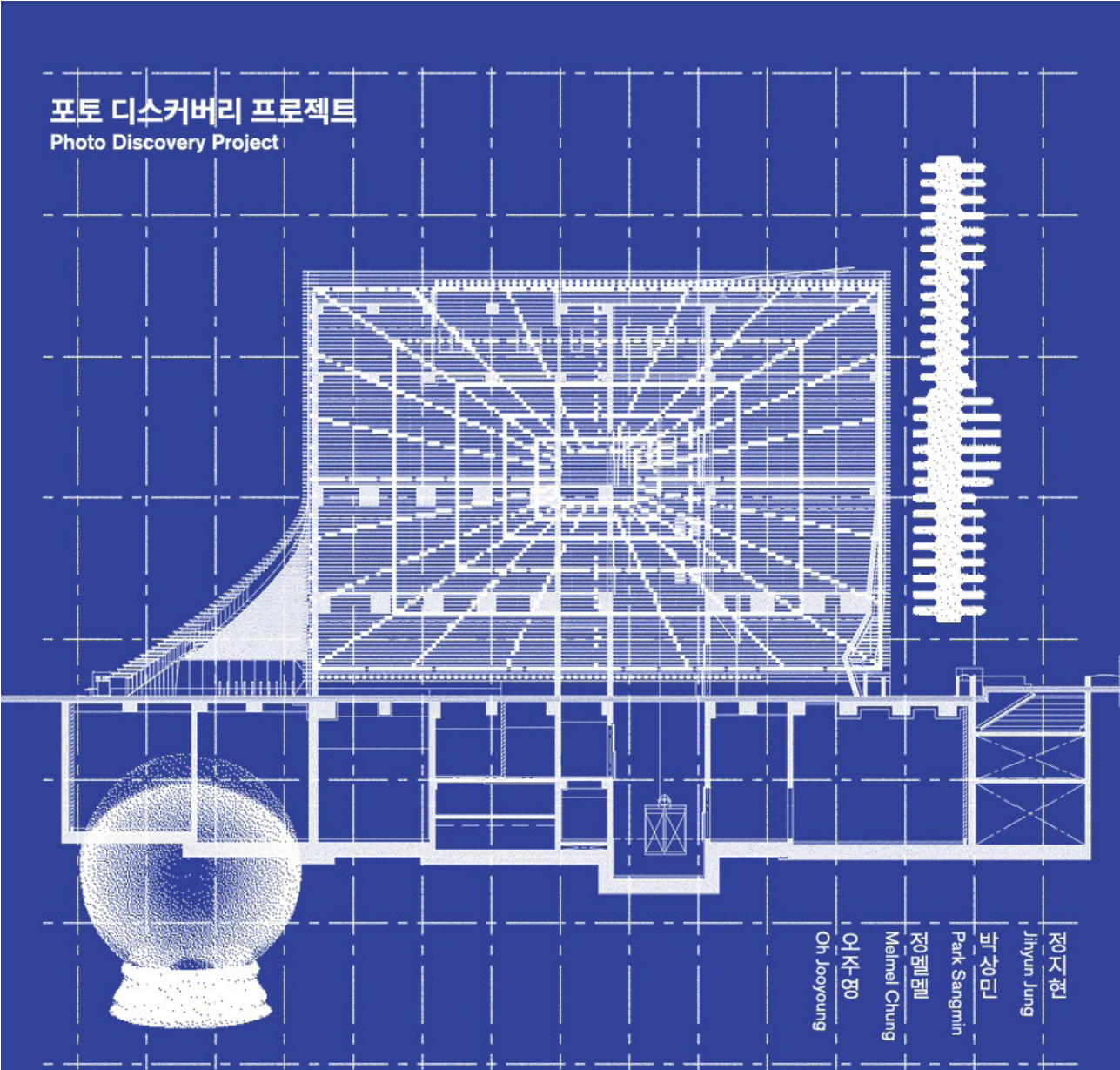
» 지난호 정답 : Top-down 예산제도

»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 4135 010-****- 7526 010-****- 2019
010-****- 7751 010-****- 7355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 『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포토 디스커버리 프로젝트
Photo Discovery Project



스토리지 | 또 다른 | 이
스토리 | STORAGE | ANOTHER | 야기
STORY | LAYER

+^x 청년문화예술패스⁺ 2차 발급



지원대상

대한민국 19세 청년 총 16만명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6년 (2006.1.1~2006.12.31.) 출생자
* 1차 발급 후 잔액 미사용하여 지원금이 회수되는 사람은 2차 발급신청 불가

지원내용

1인당 연 10만원~15만원
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

신청방법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선택 가능한 협력에매처 : NOL 티켓 or YES24 티켓 중 택 1

신청기간

2025.07.07.(월)~2025.11.30.(일)

* 신청순으로 발급(지역별로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지역의 발급이 마감됨)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2025.12.31.(수)

*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문의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지원센터 1577-1968

